

12일 Market Index			
↑ 코스피	8123.62	↑ 코스닥	1029.05
	(+359.67)		(+32.12)
↓ 금리 (연이자율)	3.808	↓ 환율 (원/달러)	1518.30
	(-0.096)		(-10.60)

리부트 코리아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AI 박차
04



호실적 vs 원가급등 '정당한 보상' 공방

식품·유통 '성과급 갈등'

오리온, 부분과업 진행 후 17일 임금협상 추가 교섭 신세계 노조 "투명성 강화, 성과급 10%→15% 높아야"

반도체·IT 업계에서 촉발된 성과급 및 보상 체계 논란이 최근 글로벌 실적 호조를 누리고 있는 식품·유통 업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사상 최대 실적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고유가·고환율 등 경영 환경 악화 및 업종별 특수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성과 배분의 적정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시각 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식품업계에서는 오리온 영업노동조합(오리온노조)이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을 이유로 이달 초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하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리온 노조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전면 파업까지 검토했으나, 오는 17일 사측과 다시 임금협상 테이블에 앉아 추가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리온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기본급 인상 폭과 수당 체계 개선이다. 노조 측은 회사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배당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목표 상향과 수당 조절로 인해 직원들의 실제 급여는 오히려 줄었다며 전 직무 기본급 7.5% 인상과 기존에 합의했던 기본급·수당 비율 조정(6대 4→7대 3)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4주 연속 기름값 하락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3%대 하락한 가운데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도 4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7~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 주보다 리터당 0.5원 내린 2009.9원, 경유는 전주 대비 0.3원 하락한 2004.8원을 기록했다. 14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뉴스

이 같은 움직임은 유통업계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신세계 노조는 최근 사측에 성과급 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지급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률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성과급 산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임금 인상 자체가 노사 협상의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성과급과 특별보상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훨씬 커졌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과 경영 환경을 고려해야 하고 직원들은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갈등이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식품·유통업계의 특성상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IT 업계 수준의 보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리온 사측은 업계 최고 수준

의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임직원 평균 급여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실적 성장이 국내 사업 성과가 아닌 해외 법인의 선전 덕분이라는 점도 사측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오리온의 국내 매출은 0.4%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중국·베트남·러시아 등 해외 법인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국내 영업직원의 기여도와 해외 성과를 전적으로 연동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1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경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 글로벌 먹거리 된 'K-푸드'

메트로경제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7일(수)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제 'K-푸드'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파고들며 글로벌 식문화의 새로운 주류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고유의 맛과 건강한 식문화를 담은 K-푸드는 전 세계 유수의 마켓과 식탁을 점령하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가 매일 즐기는 '세계인의 먹거리'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대표 식품 기업들의 발자취와 성공 전략을 조망하는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준비합니다. 이번 포럼은 풀무원, 대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마주한 다음 단계의 도약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독창적인 제품 개발 스토리부터 한국 식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화에 성공한 비결까지, K-푸드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묻는 다채로운 강연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K-푸드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트렌드로 이어지기 위한 방향성을 진단하고, 동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계획입니다.

- 주 제 : K-food, 세계인의 먹거리
- 일 시 : 2026년 6월 17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푸디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 참가비 : 사전 등록시 무료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1500원 환율' 투기세력 엄정 대응

정부, 외환시장 교란행위 단속 역외 NDF 거래 투기 등 중점

정부가 원·달러 외환거래 관련 해 투기 의혹을 보다 세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역외선물환(NDF) 거래 등이 주요 감시대상이다. 한편 이 같은 감독 강화가 거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유관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외환시장 내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미 달러화 대비 원화 값이 1500원을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원화 약세를 악용하는 투기 세력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역외 NDF 거래에서의 투기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 거래는 원금의 실제 교환 없이 차액만을 주고받는다. 파생

상품의 하나로,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만기 시의 환율과 만기가 도래했을 때 실제 환율의 차액만을 달러로 정산한다.

따라서 원화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값의 하락 또는 상승에 베팅할 수 있다. 이에, 투기 거래가 한쪽에 몰릴 시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 DF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뉴욕과 런던 시장에서의 역외 시간대 거래는 실시간 점검이 어려운 만큼, 국내시장으로 들여와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수출입기업의 이른바 '리드엔 래그' 거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M-커버스토리

中 장악 ESS, 북미 틈새 노리는 K-배터리

K-배터리, 실적 방어

LG엔솔, 1분기 ESS 출하 급증 글로벌 점유율 1.4%→2.7%

전기차 시장 부진으로 성장 정체에 직면한 K배터리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과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ESS와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전고체·나트륨이온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속도를 내면서 국내 업체들은 북미 ESS 시장을 발판으로 반격에 나서



LG에너지솔루션 ESS 전력망 컨테이너 제품.

는 한편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최근 글로벌 ESS 시장에서 존재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ESS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3% 늘어나 글로벌 점유율이 1.4%에서 2.7%로 올랐다. 삼성SDI의 같은 기간 ESS 출하량도 34% 증가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배터리 업황 회복이 지연되면서 ESS가 실적 방어와 신규 수요 확보의 핵심 시장으

로 부상하고 있다. ESS는 가격 경쟁력이 시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국내 업체들도 LFP 배터리를 앞세워 공급 대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에 나섰다. SK온도 미국 조지아 공장 일부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ESS용 LFP 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북미 ESS 시장은 국내 업체들이 중국과 다시 맞붙는 핵심 무대로 꼽힌다.

<3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나경원 "오세훈, 7월 전 사퇴하면 '3연임 제한' 안 걸려" 재선거 재차 촉구 /사진 뉴스
▲국힘 "장동혁 거취 논할 단계 아냐, 사퇴 밝힌 적 없어"

▲與 지도부, '정청래 사퇴론'에... "연임 도전 시 사퇴규정 없다"
▲오세훈·한동훈 생환에 대권지지도 야권 중심 재편...여권 김민석 선두

▲정부, 탈모 건보 적용 추진... "하반기 국민 의견 수렴"
▲서울 종각·을지로서 쿼어퍼레이드...인근서 반대 집회도

한달간 76조 팔더니… 하루새 2.7조 담았다 ‘외인의 귀환’

종전 기대감… 반도체株 ‘사자’

美 트럼프, 종전 서명식 등 거론 이란도 ‘타결 임박은 사실’ 밝혀 내년 메모리 부족… 가격 오를 듯 삼전·하이닉스 등 아직 ‘저평가’ 유럽·日 등 주요국 금리인상 북병

지난 12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달 넘게 이어온 ‘코스피 팔자’ 흐름을 멈추고,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2조7000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끌어 담았다. 외국인들은 이달 초 코스피가 9000선을 향해 맹렬히 진격할 때도 한국 주식들을 거의 매일 내다 팔았고,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31조원(5월7일~6월12일) 넘게 자금을 빼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이 임박한 가운데 외국인들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대규모 매수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국면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미·이란 종전 기대감, 외국인 돌아오나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지난 12일 코스피 시장에서 2조204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날 매수세는 반도체 종목을 압도적으로 끌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조2882억원, SK하이닉스를 9716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두 종목을 합산 순매수액만 2조2598억원에 육박한다. 개인이 삼성전자(1조9799억원)와 SK하이닉스(6744억원)를 차익실현하며 빠져나



코스피가 전 거래일(7763.95)보다 359.67포인트(4.63%) 오른 8123.62에 마감한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뉴시스

가는 모습을 보습과 대비된다.

이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볼 수 없었던 움직임이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코스피에서 75조956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기간 삼성전자에서 빠져나간 외국인자금만 약 31조9767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주식 역시 29조504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높은 수익률을 안겨다 줄 한국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와 통화에서 주말 중이나 내주 월요일(15일)에 MOU 체결 서명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란도 MOU 잠정 합의를 확인하면서, 날씨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타결이 임

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으며, 종전 협상 중재역을 맡은 파키스탄의 세바즈 사리프 총리는 “최종 합의문(Final, agreed upon text)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종전 MOU에는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한편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비핵화와 제재 완화 문제에서는 양측의 발언이 엇갈리며 막판까지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국증시 수익률도 가파르다. 코스피는 올해 선진국들을 제치고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증시 상승률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폭발적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6월 현재 고객사들의 2027년 수요 전망을 감

안하면, 내년 메모리 공급은 올해보다 더 부족해질 것”이라며 “현재의 공급 부족은 단기 가격 상승 요인에 그치지 않고, 실적상향과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동시에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AI 인프라 핵심 공급망에 위치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의 주가는 아직 절반도 오르지 않았다는 평가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관찰대상국(위치리스트)에 편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코스피 1만 10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는 노무라증권은 한국이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위치리스트)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60% 수준으로 제시했다. 오는 24일 새벽 MSCI는 ‘연례 시장 분류 리뷰’를 발표한다.

◆금리 인상 및 빅테크 회계이슈가 북병 그러나 곳곳에 북병도 있다.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금리 인상이다. 글로벌 각국은 중동전쟁발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국면에 한 발 더 다가선 상태다.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16~17일)에 주목한다. 유럽중앙은행이 최근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워시 의장이 내놓을 발언에 따라 주식시장이 널뛰기를 보일 수 있어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은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3.50%~3.75%에서 동결될 가

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경제전망, 특히 금리 전망에 대한 부분과 워시의 첫 기자회견에 주목 중”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AI) 거품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오리클이 11일 내놓은 2026회계연도 4분기(2026년 3~5월) 실적은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다. 매출 129억달러는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난 수치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2.11달러로 같은 기간 24% 증가했다. 하지만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한때 10% 이상 급락했다. 오리클의 ‘사상 최대 실적 기록 후 주가 급락’은 빅테크 전반으로 번지는 회계 논란과 맞닿아 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도 회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최근 1분기 매출이 816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5% 급증했다고 밝혔다. 같은 분기 매출채권은 407억1000만달러로 불었다. 오픈AI가 엔비디아 칩을 외상으로 사며 매출이 늘고, 오픈AI 기업가치 상승에 따라 엔비디아 자산도 늘어나는 구조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연준의 정책 기조를 확인한 이후 방향성이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라며 “빅테크의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확인될 경우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투자하는 AI 인프라 투자 전략이 재차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1면 ‘1500원 환율…’서 계속

유가 급락 했지만… 한은, 금리 인하엔 ‘신중론’

브렌트유 87.33달러, 3월초 이후 최저 한은 ‘원화 약세’ 핵심 불확실성 지목 금리 경로, 완화보다 ‘경계’ 가까워

미국 소비자물가를 4%대로 끌어 올렸던 국제유가가 미·이란 종전합의 기대 속에 급락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의 물가 섀넬도 다시 흔들리고 있다. 다만 합의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데다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와 원·달러 환율 불안이 남아 있어, 유가 하락이 곧바로 금리 인하 명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브렌트유 선물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배럴당 87.33달러에 마감했다. 전 거래일보다 3.05달러, 3.37% 하락한 수준으로 3월 초 이후 최저치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

(WTI)도 배럴당 84.88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2.83달러, 3.23% 떨어졌다.

유가를 끌어 내린 것은 미·이란 종전 협상 진전 기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이란과의 합의가 일요일 서명될 예정이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美 물가 끌어올린 에너지

유가 하락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미국 물가 급등의 핵심이 에너지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4월 3.8%에서 더 높아져 4%대에 재진입했다.

물가를 끌어 올린 주된 요인은 에너지였다. 5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3.9% 올랐고,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새 7.0% 뛰었다. 미국 노동부는 에너지가 월간 CPI

상승분의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중동 긴장과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소비자물가로 빠르게 전이된 것이다.

반대로 유가 하락세를 이어가면 6월 이후 미국 물가 경로에는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연준 입장에서 유가 방향은 물가 전망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한은 인하 명분은 약해

국내경제에도 유가 하락은 분명 호재다. 한국은 원유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석유류와 공업제품, 운송비, 서비스 가격으로 이어지는 비용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 최근 국내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선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안정은 물가 상방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하지만 한은이 곧바로 금리 인하 쪽으로

움직일 환경은 아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완화 효과가 환율에서 일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가 내려가도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가격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

한은도 이미 유가와 환율을 물가 전망의 핵심 불확실성으로 지목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7%로 크게 올려 잡았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은 정책 변수 간 상호 관계에 직면하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충이 크지 않다”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삼성 파운드리, 흑자 로드맵 다시 짠다

흑자시점 1년 미뤄진 2028년 제시 내일부터 사흘간 글로벌 전략회의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가 흑자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선다. 당초 이르면 내년으로 거론되던 흑자시점이 2028년으로 제시되면서,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이에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은 글로벌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사업 재편에 고삐를 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각 사업부문별 글로벌 전략회의를 연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은 16,17일 사업부별로 열리고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 DS 부문은 18일 전 부회장 주재로 진행된다.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열리는 정례회의로, 주요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이 사업 현황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 재편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사업부가 속한 DS 부문 회의에서 선단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력 공정의 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흑자를 내는 8인치 구형 공정에 대해서도 시장이 레드오션화되고 있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편의 배경에는 사업부장의 진단이 깔려 있다. 한진만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은 지난 12일 사업부 경영현황 설명회에서 “파운드리 사업의 흑자 전환은 내년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2028년에는 흑자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

는 모바일 중심 사업 구조 탈피 지연, 기술 완성도 부족, 수익성이 낮은 수주 구조, 성숙 공정 운영 전략 미흡 등을 적자가 이어진 배경으로 꼽았다. 이어 “적자를 만든 것은 결국 경영진 책임”이라며 체질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적자요인으로는 특별경영성과급에 따른 비용 부담도 거론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 합의로 반도체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했다. 이 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이 자사주로 지급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세종=김연세 기자 kys@

LFP 주도권 내준 K-배터리... 전고체로 시장 반격 노린다

기술격차 확보 총력

中, 전고체·나트륨이온 동시 공략
CATL·BYD, 2027년 적용 계획
양산 검증·공급망 전략 승부처

삼성SDI, 2027년 양산 목표
LG엔솔, 전기차·로봇용 개발
SK온, 황화물계·리튬메탈 병행



인터배터리 2026에서 선보인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샘플. /삼성SDI

차세대배터리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K배터리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보급형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주도권을 잡은 만큼, 국내 배터리 업계로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기술 격차를 다시 벌일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이 시제품 개발과 소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도 완성차 기업과의 협력,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전고체와 나트륨이온 배터리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아직 시장이 본격 양산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수출과 가격, 안전성을 갖춘 양산 역량이 향후 차세대 배터리 주도권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 전고체 기술 확보에 집중하는 K배터리

배터리 시장은 그동안 성능을 앞세운 삼원계와 가격을 앞세운 LFP가 각기 다른 영역을 나눠왔다. 삼원계 배터리는 고용량 구현에 유리하지만 열 안정성 관리가 어렵고 LFP 배터리는 제조 비용과 안전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고출력·장거리 주행 수요에는 한계가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구도를 넘어설 후보로 꼽힌다. 불이 붙기 쉬운 액체 전해질을 고체 소재로 대체하면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배터리 용량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가 안고 있던 안전성과 성능의 균형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배터리 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SDI는 국내 배터리 3사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을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수원 S라인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운영 중이다. 올해 인터배터리 2026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용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공개했다. 기존 전기차용 각종 전고체 배터리에 더해 로봇과 항공 시스템, 웨어러블 등으로 적용처를 넓히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응용처별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용 흑연계 전고체 배터리는 2029년, 휴머노이드 로봇과 도심항공교통(UAM)용 무음극계 전고체 배터리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무음극 배터리는 음극 활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크게 줄여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동일한 공간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전기차 등 고에너지 밀도가 필요한 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SK온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메탈 배터리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대전 미래기술원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를 기반으로 2029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기 목표 에너지 밀도는 800Wh/L다. 장기적으로는 1000Wh/L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일부 라인인 리튬메탈 배터리 개발에도 활용된다. 리튬메탈 배터리는 흑연 음극 대신 금속 리튬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고체와 함께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경쟁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 中, 전고체·나트륨이온에 대규모 투자

중국 업체들도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와 완성차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CATL은 2025년 연구개발비로 221억위안(약 4조9652억원)을 집행했고 누적 연구개발 투자비도 900억위안(약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배터리 3사 합산 연구개발비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완성차 적용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상하이자동차(SAIC)는 배터리 기업 칭타오와 공동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 탑재 전

기차를 2027년 출시할 계획이다. BYD도 2027년 일부 차량에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하고 2030년 이후 본격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CATL 역시 2027년 소량 생산, 2030년 이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차세대 배터리 경쟁은 전고체에만 그치지 않는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도 중국이 전략적으로 키우는 분야다. 리튬 의존도를 낮춰 원재료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보급형 전기차와 ESS 시

장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저온 성능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어 LFP 이후 시장을 넓힐 기술로 평가된다.

CATL은 나트륨이온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발 앞서가고 있다. 양산 단계에 근접했다는 평가 속에 전기차와 ESS를 중심으로 적용처를 넓히고 있다. ESS 분야에서는 하이퍼스트롱과 3년간 60GWh 규모 공급 협약을 맺었고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승용차 적용도 예고됐다.

◆ 양산 검증이 승부처·기술 선택도 과제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양산 검증 단계에 있어 국가 간 기술 경쟁의 우열을 가리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발 계획과 시제품 공개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상용화 과정에서는 수출과 가격, 안전성, 수명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결국 시제품 공개보다 안정적인 대량 생산 체계를 누가 먼저 갖추느냐가 경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국내 업체들의 선택도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힘을 쏟는 동시에 중국이 앞서가는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시장 확대 가능성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업체들이 차세대 배터리 경쟁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데는 LFP 시장에서의 경험이 작용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삼원계 배터리 기술력에 집중하는 사이 CATL과 BYD는 LFP를 앞세워 ESS와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장악했다. 기술력만으로는 시장 주도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중국이 확실히 앞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가격보다 실제 배터리로서 성능과 안전성을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YUHAN 100th Anniversary



신뢰의 100년 약속의 100년

신뢰로 쌓아온 100년 위에 책임을 더해,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길.
다음 100년을 향한 유한양행의 약속입니다.



유한양행

LG엔솔, 북미 ESS 핵심 공급사로 부상

>> 1번 '中 장악 ESS...' 서 계속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투자 확대로 ESS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견제 기조와 공급망 재편 흐름이 맞물리면서 현지 공급 능력을 갖춘 국내 업체들에게 반격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에서 ESS를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꼽히며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수요 확대에 대응할 핵심 공급사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포드가 CATL 기술을 활용해 ESS 사업에 진출한 사례처럼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산 배터리 배제와 중국 기술 활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국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내 정책 환경이 국내 업체에 우호적으로 바

뀌더라도 가격 경쟁력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지 못하면 중국 업체와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글로벌 ESS 시장은 여전히 중국 업체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ESS 시장 점유율은 CATL 29.9%, EVE 10.5%, 하이티움 9.5%, BYD 9.1%, CALB 7.6% 순으로, 상위 5개 업체가 모두 중국 기업이며 합산 점유율은 70%에 육박했다.

ESS를 둘러싼 경쟁은 전고체·나트륨이온·반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영역으로도 번지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술 확보와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 고도화에 집중하며 중국 업체들의 제품군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글로벌 완성차 '수익성·다변화' 잡고, 미래 모빌리티·AI 준비

4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전 세계 생산·조립 거점 확장과 더불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하이브리드 등 고수익 모델의 판매 확대로 질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완성차 업체 중 판매량 세계 3위, 영업이익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과거 '많이 팔아야 돈을 번다'는 공식을 깨고 고부가가치 차량 위주의 믹스 개선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쟁력을 앞세워 폭스바겐그룹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수익성 '글로벌 톱 2'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전기차, 자율주행 등 미래 먹거리 부문에서의 기술력 확보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기회로 보인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 수익성 성장세 지난해 토요타 이어 영업이익 2위 매출 300.3조, 영업이익 20.5조

정의선 회장 추진 '프리미엄' 영향 소형차 줄이고 제네시스·SUV 집중 전기차 캐즘에 하이브리드로 전환 기아, 텔루라이드·EV2로 승부수

◆글로벌 시장서 수익성 정점 '영업이익 2위'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단순히 차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수익성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폭스바겐그룹을 제치고 토요타에 이어 글로벌 영업이익 2위에 올랐다.

현대차그룹의 2025년 매출은 300조 3954억원, 영업이익은 20조 546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판매량 기준 세계 2위인 폭스바겐그룹의 영업이익(약 15조 300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주목할 점은 효율성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727만대를 판매했다. 폭스바겐(898만대)보다 약 170만대 적게 팔았지만 이익은 5조원 이상 남겼다. 영업이익률에서도 현대차그룹은 6.8%를 기록하며 폭스바겐(2.8%)을 압도했다. 그리고 세계 1위 기업인 토요타(8.6%)도 추격하고 있다.

이같은 성장의 비결은 바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추진해온 프리미엄 브랜



드 경쟁력 확보가 자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이같은 질적 성장은 제네시스 브랜드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중심에 있다. 현대차그룹은 수익성이 낮은 소형차 비중을 줄이고 제네시스와 SUV 중심의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에 집중했다. 실제로 현대차는 판매 대수가 전년과 비슷했음에도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기차 캐즘 현상에 대한 대응도 눈길을 끈다. 전동화 전환에 집중했던 유럽 완성차 브랜드가 부진에 빠진 사이 현대차그룹은 하이브리드 전환으로 수익성을 확보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신차 경쟁력에 하이브리드의 수익성이 더해지며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미국의 수입차 관세 대응도 빛을 발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관세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을 올렸지만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 확대와 재고 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 현대차는 올 하반기 하반기에 완전변경 모델과 투싼 플레인지버, 제네시스는 GV80과 G80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며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아는 북미 시장 인기 차종인 텔루라이드의 하이브리드 모델과 보급형 전기차 EV2로 승부수를 띄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판매 목표를 전년 대비 3.2% 늘어난 750만 8300대로 잡았다. 이를 통해 글로벌

2위 자리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신용 시장 인도...생산·공급망 현지화 현대차그룹은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 현지화 전략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핵심 생산 거점인 첸나이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확대와 공급망 현지화, 미래 인재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미래 성장성과 비용 경쟁력을 갖춘 인도 시장을 발판삼아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인도에서 전년(85만 433대) 대비 소폭 상승한 85만 2164대를 판매했다. 현대차가 57만 1878대, 기아가 28만 286대를 각각 판매했다. 시장 점유율은 18.67%를 기록했다. 현대차 12.53%, 기아 6.14%로 각각 4·6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올해도 인도 시장에서 판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인도에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16만 6578대를 판매했고, 기아는 같은 기간 11.6% 늘어난 8만 4325대를 기록했다. 양사 합산 판매량은 25만 9033대로 분기 기준 처음 25만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인도 시장을 단순히 판매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전진기지, 미래 기술 연구개발 현지화로 확장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달 인도공과대학교

인도 차 시장 현지화 전략 성과 첸나이 공장 중심 생산확대 추진 지난해 인도 시장 점유율 18.67%

7개 대학과 '현대 혁신센터' 계약 인도 우수인재와 39건 연구과제

국내 AI·로보틱스에 50.5조 투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집중 모빌리티 SDV·자율주행 개발

(IIT) 하이데라바드·칸푸르, 비스베스바라 국립공과대학(VNIT) 나그푸르, 테즈푸르 등 7개 대학과 '현대 혁신센터' 공동 연구체제 참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 혁신센터 참여 대학은 기존 IIT 마드라스·델리·뭄바이를 포함해 총 7곳으로 늘었다.

현대 혁신센터는 현대차·기아가 인도 기술 및 제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중장기 산학 협력 모델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를 중심으로 인도 전역 7개 대학의 우수 인재들과 총 39건의 산학 연구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과제에는 인도 시장에 최적화된 배터리 설계와 소재 연구, AI 기반 전기차-전력망 연계(V2G) 플랫폼 개발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인도 시장 전략 모델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인도는 고온과 장거리 주행, 혼잡한 도심 교통, 다양한 도로 품질 등 현지 특성에 맞춰야 현지 공략에 성공할 수 있다.

김정환 현대차·기아 전동화에너지솔루션담당 부사장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미래를 향한 공동의 약속"이라며 "현대자동차그룹과 인도 학계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이며 더욱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AI·로봇 등 미래 대응 전환

현대차그룹은 전통 제조기업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AI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전략은 피지컬 AI와 모빌리티 혁신으로, 로봇 기술을 통해 생산 방식을 혁신하고 전동화·자율주행·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을 통해 이동 수단의 개념을 바꾸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국내에 총 125조 2000억원을 투자하며, 이 중 50조 5000억원을 AI·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에 투입한다. 미국에도 260억달러를 투자해 로봇·AI·자율주행 협력을 확대하고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로봇 분야에서는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아틀라스는 최대 50kg 물체를 들고 정밀 작업이 가능하며, 배터리 교체도 스스로 수행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HMGMA 공장에 시범 투입해 성능을 검증한 뒤 다른 공장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SDV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자율주행 전문가 박민우 박사를 AVP본부장 겸 포티투닷 대표로 선임했으며, 자율주행 경쟁에서는 기술 속도보다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AI와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산업 변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우리에게 더 큰 성장 기회가 열려 있다"며 "피지컬 AI로 중심이 이동할수록 자동차와 로봇이라는 '움직이는 실체'와 제조 공정 데이터를 보유한 현대차그룹의 강점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 대해서 정 회장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고객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다소 늦더라도 안전 중심의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2일부터 13일까지(현지 시간) 인도 전역의 사업장을 찾았다. 사진은 정 회장이 현대차 인도 첸나이공장 임직원들과 함께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무룬단 현대차 인도 첸나이공장 생산 실장, 고팔라 크리쉬난 현대차 인도권역 CMO, 정 회장, 타룬 갈그 현대차 인도권역본부장.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나믹스가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자사 유튜브 채널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냉장고를 통째로 전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아틀라스는 23kg에 달하는 무거운 소형 냉장고를 무릎을 반쯤 굽힌 뒤 양팔을 사용해 균형을 유지하며 뒤쪽에 위치한 테이블까지 이동, 상체만 180도로 회전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보스턴다이나믹스 유튜브 영상 캡처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금융이 해야 할 일 국민의 희망을 키우는 일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잘 살게 하는 것

세상에 필요한 금융은
사람을 향한 금융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

백 년 전 경주 최부자의 철학처럼
KB가 국민을 향한 포용금융에 앞장섭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금융의 역할을 더하며
더 많은 사람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희망이 자라는 곳마다
KB의 포용금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
작은도서관
건립



KB
곳잡
취업박람회



KB
마음가게

KB국민행복
성장·희망
프로젝트
영상 시청하기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KB의 포용금융]

📖 KB작은도서관

모든 아이들이 독서와 함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2008년부터 2026년 말까지 전국 143곳에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KB곳잡 취업박람회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과 우량 기업의 만남을 제공하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를 2011년부터 진행하며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 KB마음가게

어려운 시기에도 착한 가격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소정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2030년까지 총 110조 원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과 서민 취약 계층을 동시에 지원하며 '미래산업 육성'과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본격화… 법사위 배분 최대 쟁점

여야, 주요 상임위원장 놓고 대립 민주당, 18일까지 협상 마무리 목표 국힘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

국회가 제22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에도 핵심 쟁점은 각종 법안들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8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하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은 전반기와 같을 전망이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선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며 ‘반례’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체계·자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구 심사를 하는 곳이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법안 처리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곳이라, 사실상 ‘상원’처럼 기능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으려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사위원장을 맡지 못하면 전반기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석 수로 우위에 있는 민주당에 밀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최보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쪽주와 법무부의 필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며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 직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야당이 법사위원직을 사수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의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각종 입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지 금도 계류중인 민생입법을 최대한 공회전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단, 지방선거 전 공식화했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방침은 거둬들이는 모양새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개 중 12개를 차지하며 승리를 거뒀지만, 서울 시장 선거에서 패배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겹쳐 강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선관위 사태 관련 국조특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주 내로 협상을 마칠 방침이다. 이에 당장 이번주 원 구성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8일을 원 구성 협상의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 구성 때도 시한을 정해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당시 쟁점 상임위원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지 금도 계류중인 민생입법을 최대한 공회전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여야, 선거관리 부실 규명 나선다

이르면 이번 주 국조특위 구성 위원 배분방식·범위 두고 이견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르면 이번 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개혁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어 여야가 어느 범위까지 논의할 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계획서를 의결한다

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국회 하반기 원구성, 대통령 유류 순방에 대한 성과 지원 문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며 특위 구성에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총 18명인 특위 위원 배분 문제에 서부터 여야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9명씩 동수로 참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사 범위에 쟁점이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검토 과정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조치 과정의 적정성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조사 범위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경위 ▲투표용지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선거효력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효력 등을 조사 범위로 삼았다.

특히 민주당은 청와대를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통령이 선관위원장을 지시하는가. 그렇지 않다”며 “왜 청와대를 포함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번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선관위 관리에 그동안 손 놓았다는 게 핵심”이라고 이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 선 현재 1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늘리고 독립 감사기구를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

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단, 전면적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선관위 구성과 위원 신분보장이 헌법에 규정됐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도 여야 간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유지하는 가운데 확실한 개혁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해체에 중점을 둔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에 국조특위 계획서를 이번주 내로 처리하려면,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선관위 개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결국 특위 출범 이후 선관위 개혁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이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교황청서 평화 메시지… 오늘 레오 14세와 면담

평화·연대에 관한 한국의 뜻 전해

이탈리아 국민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박2일간의 바티칸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14일엔 성 바오로 성당에서 열리는 특별미사에 참석해 기념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했다. 15일엔 레오 14세 교황을 만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 바오로 성당에서 열리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교황청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 미사를 계기로 연설에 나섰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와 연대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취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순방 전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세계 평화의 상징인 교황과의 면담 그리고 특별미사에서 이루어질 대통령의 연설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평화와 연대에 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뜻을 세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이탈리아를 국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3일(현지시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을 시찰하고 있다. /뉴스시

계에 전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또 한국인으로서 성직자부 장관에 최초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해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 및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15일엔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으로 면담한 후 파울린 교황청 국무원장(추기경)을 만난다. 이번 방문은 지난

해 5월 레오 14세 교황 즉위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대한민국 정상의 교황청 방문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교황과의 면담에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방향을 계기로 방북 요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계청년대회는 교황이 직접 방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청년 행사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두 번째이자 가톨릭이 다수 종교가 아닌 국가에서는 처음 열린다.

/서예진 기자

증시 떠난 3.7조, 부동산으로 향했다

국토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서울 주택 구매에 2.4조 유입

올해 들어 주식·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 약 3조7000억원이 주택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65%인 2조4000억원은 서울 주택 구매에 사용됐으며, 특히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따르면, 올해 1~4월 주식·채권 매각대금 3조7254억9400만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됐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신고하는 서류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주식·채권을 매각해 마련한 주택 구매 자금의 65.5%(2조4396억원)가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됐다. 특히 강남구(3707억원), 송파구(3532억원), 서

초구(2904억원) 등 강남3구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고가 주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두드러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매입에 사용된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0년 3.2%, 2021년 4.9%, 2022년 4.5%, 2023년 4.1%, 2024년 4.6%, 2025년 4.7% 등으로 5% 이내를 유지했지만, 올해 1월 9.3%에 이어 4월에는 13.2%로 상승하며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주식·채권 매각대금 유입 규모가 가장 컸다. 올해 1~4월 30대가 활용한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1조25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40대(1조876억원), 50대(8022억원), 60대 이상(4893억원), 20대(659억원), 20대 미만(1억원) 순이었다.

김종양 의원은 “국민은 주식을 팔아 집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새롭게 펼쳐질 당신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이
제2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가 당신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중장년 맞춤형 재취업 교육 지원

· 직무별 특화 교육 및 시실무 역량 강화
·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한 재취업 기회 제공

고령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시니어 토탈 케어 하나 행복드림(Dream) 버스 운영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내집으로 받는 평생연금

· 주택 가격 제한 없는, 내 집으로 준비하는 노후 자산 솔루션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우체국서 4대은행 대출 받는다... 불완전판매 해소 등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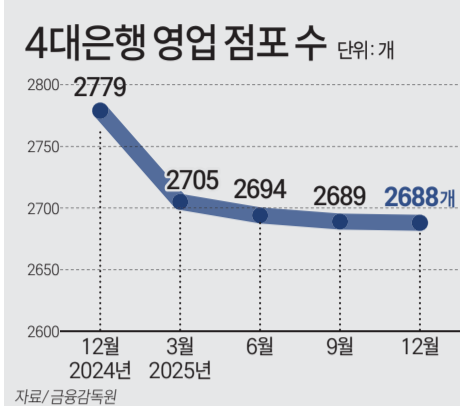
내달부터 '은행대리업' 시행

금융위, 은행 점포 축소 공백 해소
우체국서 대출 신청, 은행서 심사
규격화 개인신용, 정책금융 판매
정보 보안·관련법안 마련 등 필요

오는 7월부터 우체국에서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은행의 대출 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우체국은 판매만 담당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은 은행이 부담하는 구조여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은행의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대리업'을 시행한다.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 즉 예·적금, 대출, 이체 등은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은행대리업 도입은 은행권의 점포 축소로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의 금융서



은행대리업 업무예시

업무프로세스	주요업무	수행주체
상담·서류징구	여신심외 및 상담, 신용정보 조회 동의, 신청서 접수 등	은행대리업자
대출심사	신용평가, 담보평가, 금리·수수료율 산정 등	은행
대출승인	대출금리 최종 판정, 여신승인 등	은행
계약체결	승인여부 및 계약비용 안내, 대출약정서 작성 등	은행대리업자



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4대 은행의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688개로 전년(2779개)보다 91개 감소했다. 특히 지방과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 폐쇄가 이어지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불편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은행대리업이 시행되면 고객은 우체국 창구에서 대출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된 대출상품은 은행의 대출심사와 승인을 거쳐 우체국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금융위는 대출상품 구조

가 복잡한 기업 여신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비교적 규격화된 개인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위주로 판매할 예정이다.

문제는 대출 신청부터 심사, 승인,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체국과 은행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다. 우체국 직원이 상품 설명과 신청 접수를 담당하고 실제 심사와 승인, 사후 관리 등은 은행이 맡는 구조인 만큼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판매를 담당할 우체국과 최종 책임을 지는 은행 중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산망 연동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우정사업본부의 자체 전산망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시중은행의 내부망을 안전하게 연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정보와 금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오가는 만큼 정보

유출과 해킹, 시스템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대리업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제도화를 위한 입법 과제도 남아 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범 운영 이후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대리업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 소비자보호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대리업은 금융 소외지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소비자보호와 정보보안, 책임 체계 등에 대한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충분히 점검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카드사 '주유비 할인' 실속 마케팅 강화

우리·KB 2곳만 '월드컵 프로모션'
카드사, 민생부담 완화 기조 맞춰
내달까지 자체적 주유비 할인 연장

카드업계 마케팅 공식이 변하고 있다. 월드컵 등 일회성 시즌 이벤트보다 주유 할인 등 실생활 밀착형 혜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마케팅 전략이 비용 효율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업 카드사 가운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곳은 우리카드와 KB국민카드 두 곳에 불과하다. 앞서 NH농협카드가 월드컵 경기 직관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종료됐다.

먼저, 우리카드는 내달 19일까지 '2026 북중미 월드컵 캐시백 이벤트'를, KB국민카드는 이달 26일까지 '준비! 아게인 2002 해외이용하고 응원키트 받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카드의 경우 이벤트 기간 국내외 결제 시 이용금액대별 캐시백을 지급한다. 특히, 북중미 지역에서 결제 시 꿀머니 리워드를 추가로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미화 환산금액 16달러(USD) 이상 결제하면 추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어느 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첨을 통해 월드컵 응원키트를 제공한다. 카드사들의 월드컵 특수 이벤트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다. 한국축구연맹(FIFA)이 '월드컵' 단어 사용에 대한 지식재산권(IP)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월드컵 이벤트를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업계는 규제보다 수익성 악화가 더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가맹점 수수료 감소로 업계 전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일회성 이벤트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일상생활 혜택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이 재편되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월드컵 관련 광고도 많았고 혜택 이벤트가 많았다"며

"그러나 현재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업계 수익성이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 최소한의 일상적인 혜택만 남고 혜택이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카드사들은 월드컵 관련 이벤트보다 주유 할인 혜택 연장에 힘을 쓰고 있다. 실제 일부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고유가 대응 민생 부담 완화 기조에 맞춰 지난 5월까지 확대 제공하기로 했던 주유비 할인 혜택을 내달까지 자체적으로 연장했다.

먼저, NH농협카드는 내달까지 올바른 오일&패스카드와 '올바른오일카드' 개인 신용카드 고객 대상 '3차 주유비 캐시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리카드도 같은 기간 'SK 주유 400 우리카드' 이용 고객 대상 10만원 이상 이용 시 캐시백 5만 원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신한카드는 '딤오일' 및 'RPM+플래티넘스' 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5만원 이상 주유 시 3% 추가 캐시백 할인 혜택을 연장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SK에너지 리브유 KB국민카드' 이용 고객에게 리터당 50원 추가 캐시백을 지급한다. 롯데카드는 '로카 포 오토'를 통해 4대 정유사 이용 고객에게 월 30만원 한도 내로 리터당 100원을 할인해 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예·적금 금리 올렸더니... 수신 거래자 증가

저축은행, 1분기 이용자수 989.9만명
전분기비 1.6%, 전년비 7.7% 증가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수신 거래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주요 저축은행이 주식 시장으로의 마니부르를 막기 위해 파킹통장, 고금리에·적금 상품을 출시한 것이 고객 유입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이용자 수는 98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대비 15만4240명(1.6%), 전

년 동기 대비로는 70만7453명(7.7%) 증가했다. 여수신별로 살펴보면, 여신(대출) 거래자 수는 전분기 대비 9만9640명, 수신 거래자 수는 5만4600명 확대됐다.

특히, 수신 거래자 수의 증가세 전환이 눈에 띈다. 앞서 지난해 3분기에서 4분기 사이 수신 거래자 수는 1376명 감소했다.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수신 거래자 수가 23만4528명 급감했던 지난 2023년 말 이후 첫 감소세다. 증시 활황에 따른 마니부르(자금 이탈)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다.

수신 거래 고객 증가 배경으로는 저축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높이며 자금 이탈 방어 전략에 나선 것이 일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35%다. 연초 2.92% 수준이었던 금리는 2월 중순 3%대를 넘어선 뒤 지금까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웰컴저축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연 3.2%에서 연 3.3%로 올렸다. 금리 인상분은 웰컴저축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 상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JT저축은행 역시 대면 채널의 정기예금 금리를 연 3.51%로 인상했다. /안재선 기자

이번주, 전국 7개 단지서 3606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일반 분양물량 3088가구

6월 셋째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360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3088가구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 충남 천안시 백석동 '백석시그니처자이1·2단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알티에로광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6블록에서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1개동, 전용면적 84~111㎡ 총 743가구 규모다. 평택과 수도권으로(평택-화성), 평택제천고속도로 등을 통해 화성, 용인 등 수도권 인근도시로 이동이 편리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와 송탄, 칠곡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배후주거지로 기능할

전망이다. 2028년 10월 평택시청 신청사가 개청 예정이며, 단지 앞 업무 및 근린 생활시설과 초·중학교 부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모달하우스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힐스테이트양산더스카이(1·2BL)',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리버시티(2BL)'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중흥토건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2BL에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리버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6개동, 전용면적 59㎡, 총 50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이 2028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3호선 대저역과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등을 잇는 강서선 트램도 추진 중이다. 화전지구 일반산업단지,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단지 등이 가까워 통근 여건이 좋다. 일부 세대의 경우 서낙동강 조망이 가능하며, 단지 주변 근린공원이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안상미 기자 smahn1@

NH농협생명,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

생명보험협회와 시청역 등서 진행

NH농협생명은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12일 서울 시청역과 서대문역 일대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파 원물과 가공품으로 구성된 양파 꾸러미 2000개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양파 소비 확대 동참을 당부했다.

출근길 캠페인에 이어 NH농협생명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 양파



지난 12일 서울 시청역에서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왼쪽 첫번째)와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파 꾸러미를 나누고 있다. /NH농협생명

구매를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으로 마련된 양파 30톤은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3일 경기 이천시 SKMS 연구소에서 열린 '2026 New 이천포럼'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SK

최태원 SK 회장, 이천포럼서 AI 속도전 주문

“전속력으로 AI 전환에 돌입해야”

전방위 AI 실행 필요성 주문
개인 AI 넘어 “우리의 AI” 강조
1인 1 에이전트 도입 등 제안
업무 정의·데이터 축적 당부
AI 본질은 운영개선으로 규정
메모리·데이터센터 역량 부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경기 이천시 SKMS 연구소에서 개최된 '2026 뉴 이천포럼'에서 “360도 전반위로, 전속력으로 AI 전환(AI·AI Transformation)에 돌입해야 할 때”라며 경영진과 구성원의 신속한 실행을 당부했다. 이는 그룹 차원에서의 AI 혁신 가속화를 주문한 것이다.

최 회장은 AI의 첫 단계로 업무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일을 정확히 정의하고 AI를 통해 무엇을

떻게 혁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데이터 축적을 통해 실시간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나의 AI”에서 “우리의 AI”로 진화해야 한다”면서 “1인 1 에이전트”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 구성원의 90% 이상이 AI를 쓰고 있지만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의 성과로 이어질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AI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 개의 회장 아바타들이 각 회사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에이전트들과 함께 일하고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AI의 본질을 운영개선(O/I)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래 경쟁력은 O/I 능력에서 나오는 만큼 AI 기반의 운영개선으로 기본기와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I 시대에는 반도체를 시작으로

데이터센터, 에너지, 통신망, AI 애플리케이션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메모리·데이터센터 인프라·에너지 역량을 갖춘 SK가 AI 시대에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영진을 향해서는 위기 의식도 주문했다. 그는 “지금 전속력으로 전방위적인 AI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맞이한 절호의 기회는 다시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실행을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이천포럼에서 AI를 주요 어젠다로 삼아 혁신을 강조해왔다. 최고경영진부터 실무자까지 SK그룹이 AI/DT 등 혁신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3일 동안 AI 단일 주제를 가지고 집중 토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효성중공업, 美 초고압차단기 생산거점 확보

퀀타 자회사와 GCB 합작법인 설립
초고압변압기 이어 차단기 현지 생산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 가속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이 초고압변압기에 이어 초고압차단기 현지 생산 기반까지 확보하며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확산,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북미 전력기기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현지 생산체제를 앞세워 공급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효성중공업은 자회사 효성HICO가 북미 에너지 인프라 솔루션 기업 퀀타(Quanta Services)의 자회사와 가스절연차단기(GCB) 합작법인 ‘효성HICO BREAKER, LLC’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작법인은 오는 7월 설립된다. 10월부터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퀀타의 캐논스버그 공장에서 72.5kV부터 800kV까지 초고압차단기 생산에 들어간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미국 내 전력기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효성중공업은 현지 생산을 통해 납기 대응력을 높이고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고압차단기는 전력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기기로 전력 수요 증가와 송전망 확충 흐름 속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퀀타는 미국 최대 전력·에너지 인프라 EPC(설계·조달·시공) 기업이다. 유틸리티,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데이터센터, 통신 등 전력 인프라 전반에서 사업 기반과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국내 전력기기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에서 초고압변압기와 초고압차단기 생산능력을 모두 갖추게 됐다. 이번 합작은 조 회장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미국 현지에서 퀀타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경영진을 만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부터 미국 전력시장 확대를 위해 퀀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초고압차단기뿐 아니라 직류솔루션 등 고도화된 전력 솔루션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조 회장은 “양사는 이미 차단기와 변전소 설비 공급부터 송전, 재생에너지 연계 사업까지 협력을 이어오며 파트너십을 쌓아왔다”며 “탬피스 공장을 포함한 미국 사업의 현지화 운영 경험과 이번 합작법인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미국 전력시장의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효성과 퀀타는 초고압차단기 합작법인 설립을 계기로 직류솔루션과 데이터센터 등으로 협력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올해 초 미국 유력 송전망 운영사와 국내 전력기기 기업 중 역대 최대인 7870억원 규모 전력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 전력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HD한국조선해양, 한국형 SOV 개발 추진

말콘과 지원선박 공동 개발
친환경 핵심 기술 개발 주도
기자재 국산화도 단계 추진

HD한국조선해양이 해상풍력 단지 운영에 필요한 지원선박(SOV) 국산화를 추진하며 국내 해상풍력 선박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해양 엔지니어링·해상 컨설팅 전문기업 말콘(MARCON LC)과 ‘한국형 해상풍력 지원선박 공동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SOV는 해상풍력 발전기의 유지·보수 작업을 지원하는 선박이다. 작업자들이 장기간 해상에 머물 수 있도록 숙소와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해상풍력 단지 내 정비 거점 역할을 한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육지에서 먼 해역으로 확대되면서 SOV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발전단지가 원해에 있으면 이동 시간이 길어지고 기상 악화 때 접근이 제한되는 만큼 작업자들이 선박에



김민욱 HD한국조선해양 상무(왼쪽)와 이준석 말콘 대표가 10일 경기 성남시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한국형 해상풍력 지원선박 공동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약정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

머물며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확대도 SOV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2024년 말 83.2GW에서 2034년 441GW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관희 기자

삼성, 마이크로 RGB TV 알리기 총력

세계 주요 도시서 옥외광고 진행
초미세 RGB 광원 기술 전면 부각

삼성전자가 차세대 프리미엄 TV ‘마이크로 RGB’의 글로벌 옥외광고를 세계 주요 도시 랜드마크로 확대한다. 지난 4월 출시한 마이크로 RGB TV의 화질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인지도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국내 명동 신세계스퀘어를 비롯해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홍콩 센트럴 엔터테인먼트 빌딩 등 글로벌 주요 거점에서 마이크로 RGB TV 옥외광고를 동시 전개한다. 상영은 지역에 따라 연말까지 이어진다.

마이크로 RGB는 칩 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μm·100만분의 1m) 이하인 초미세 적·녹·청(RGB) 광원 소자를 백라이트(BLU)에 적용한 디스플레이다. 각 소자가 독립적으로 빛과 색을 내 색 표현 영역

을 넓혔다. 광고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마이크로 RGB에 탑재된 ‘마이크로 RGB AI 엔진 프로(Micro RGB AI Engine Pro)’의 정밀 컬러 제어 기술이다. 수많은 RGB 소자를 AI 엔진으로 제어해 풍부하고 생생한 색감을 구현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안무가 세르지우 헤이스(Sergio Reis)와 협업해 대규모 댄서가 참여하는 메가크루(Mega Crew) 퍼포먼스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군무를 통해 수많은 RGB 소자가 정교하게 개별 제어되는 기술적 특성을 표현했다.

광고에서는 TV 통합 AI 플랫폼 ‘비전 AI 컴패니언(Vision AI Companion)’ 기능도 소개한다. AI 축구 모드를 통해 해설 음량을 조절하거나 실시간으로 선수 팀 정보를 조회하는 등 맞춤형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한화에어로, 사고 재발 방지체계 가동

안전문화혁신위원회 본격 출범
화약 등 위험물 공정부터 점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기구를 출범시키고 안전관리체계 전면 점검에 나선다. 최근 대전사업장 사고 이후 위험물 취급 공정 전반을 다시 살피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립기구인 ‘안전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사고 재발 방지 활동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1명과 노동조합이 추천한 직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문일 명예특임교수가 맡는다. 문 위원장은 한국위험물학회 회장과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을 지낸 공정 안전

및 화학공학 분야 전문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월 말까지 시스템 관리, 안전문화, 산업안전, 화공안전, 군용화약류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현장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조가 추천한 대표자 2명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안전문화혁신위원회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조직, 제도, 절차, 현장 운영 전반의 취약요인을 찾아낼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점검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화약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현황과 공정 위험성을 평가한다. 2단계에서는 중대재해 대응 체계, 안전투자 예산 운용, 안전 관련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 등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한다. /원관희 기자

중기부·중기중앙회, 이탈리아와 中企·협동조합 협력 강화

중기부, MIMIT와 양해각서 교환식 제조 기반 소상공인까지 협력 확장 양국 협동조합 간 교류 통해 강화

중기중앙회, 伊 中企·협동조합 대표기관과 민간 협력 방안 논의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오른쪽)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MIMIT 청사에서 아돌포 우르소(Adolfo Urso)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 이탈리아부(Ministry of Enterprises and Made in Italy)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중기부



이탈리아 로마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MOU & 세미나'에서 (왼쪽 세번째부터)프란체스코 나폴리 CONFAP I 부회장, 마우로 이엔코 LEGACOOP Lazio 회장, 노용석 중기부 1차관,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민간 차원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간 중소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K-브랜드 소비자 우수 제품의 유럽 진출 확대를 위한 행사도 이탈리아에서 열렸다.

14일 중기부와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중기부와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Ministry of Enterprises and Made in Italy·MIMIT) 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력' 양해각서 교환식을 가졌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협력 분야를 중소기업에서 제조 기반 소상공인까지 확장하고, 협동조합 간 상호 교류를 포함해 양국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탈리아는 뛰어난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제조 역량과 세계적인 명품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을 이루며 이탈리아만의 독특한 브랜드 가치와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다수의 소규모 협동조합이 촘촘하게 연계된 '네트워크형 생태계'가 특징으로, 대기업 못지않은 경쟁력을 발휘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다. 이번 한국과 이탈리아 간 양해각서에는

양국 협동조합 간의 교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에서 상호 경제적·기술적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한국과 이탈리아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탈리아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1일 이탈리아 로마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한-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MOU & 세미나'를 열고 이탈리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기관인 CONFAPI, LEGACOOP과 함께 민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CONFAPI'는 1947년 설립한 이탈리아 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로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 약 11만 6000개사를 대표하고 있다. LEGACOOP은 1886년 설립된 이탈리아 전국 협동조합 연합체로, 1만개 이상 협동조합과 700만명 이상 조합원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대표 협동조합 조직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 방한 당시 강조된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 확대 기초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사업으로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CONFAPI, LEGACOOP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관은 협약을 통해 ▲비즈니스 매칭 지원 ▲협동조합 관련 정책·정보 교류 ▲시장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기웅 상근부회장은 "이탈리아는 협동조합과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해 온 협동조합 강국"이라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이탈리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성장 사례를 참고해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Beauty GLOW WEEK in Rome'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열렸다. 행사에는 뷰티(미용), 패션(의류), 라이프(생활) 분야에서 견고한 수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소 브랜드 사 10개사가 참여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기, 실리콘 캐패시터로 매출 14조 기대

(올해)

MLCC 이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글로벌 대형기업과 1.5조 공급계약 고성능 반도체 영역서 강점 보여

삼성전기가 AI 반도체용 초박형 실리콘 캐패시터로 글로벌 대형 고객사와 1조 5570억원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올해 14조원 매출을 정조준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14일 실리콘 캐패시터를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에 이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기는 지난달 20일 글로벌 대형 기업과 1조 5570억원 규모의 실리콘 캐패시터 공급 계약을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의 13.8%에 해당하며, 공급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실리콘 캐패시터는 실리콘 웨이퍼에 미세한 구멍을 파 표면적을 넓힌 뒤 유전체와 전극층을 형성하는 부품이다. 세라믹 시트를 여러 겹 쌓는 MLCC와 달리 캐패

시터 구조를 실리콘 내부에 구현해 두께를 줄였다. 양산 제품은 접속 단자를 포함해도 전체 높이가 100μm에 미치지 않아 반도체 바로 아래나 패키지 기판 내부에 넣을 수 있다. 기생 인덕턴스(ESL)도 MLCC보다 100배 이상 낮아 고주파 노이즈와 전력 공급 지연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AI 서버에서는 이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연산 요청이 몰리는 순간 전력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때 전압이 흔들리거나 노이즈가 발생하면 연산 오류나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삼성전기는 실리콘 캐패시터가 MLCC를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MLCC는 대용량·고전압과 가격 경쟁력에, 실리콘 캐패시터는 빠른 전력 대응이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영역에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기는 MLCC와 실리콘 캐패시

터,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D램 제조에 활용돼 온 ISC(Integrated Stack Capacitor) 공정을 응용했고, 완성된 제품을 하나씩 검사하는 테스트 설비도 자체 개발했다. 삼성전기는 관련 시장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18%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는 올해 삼성전기 매출을 13조~14조원대로 전망한다. IBK투자증권은 12조 7722억원, 현대차증권은 14조 770억원 을 제시했다. 실리콘 캐패시터 신규 수주에 더해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 투자 확대와 MLCC 가격 인상이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봤다. 김원기 삼성전기 실리콘 캐패시터 개발담당 그룹장은 "캐패시터 부품과 실리콘 캐패시터, 패키지 기판을 모두 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기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기보, 117명 신입직원 채용... 역대최대 규모

AI 확산·산업환경 변화 대응 이달 30일 오후 4시까지 지원 접수 기술보증기금이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인 117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한다. 14일 기보에 따르면 올해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 부문별 채용인원은 직무에 따라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부문 105명 ▲법무·채권관리 부문 7명 ▲전산 부문 5명이다. 기보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완전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을 배제하고, 역량 중심의 우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입직원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의 총 4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11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입사 지원은 이달 30일 오후 4시까지 기보 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필기전형은 오는 8월 1일 서울, 부산, 대전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김승호 기보 이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기술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심의를 우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입직원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의 총 4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11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입사 지원은 이달 30일 오후 4시까지 기보 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필기전형은 오는 8월 1일 서울, 부산, 대전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김승호 기보 이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기술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기존 모델 강점 그대로, IoT 기능은 강화"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2 뉴에디션' 맞춤형 온도·용량 설정 기능 업데이트 소비자 취향 맞춤형 신규 색상 5종 코웨이가 IoT 맞춤형 기능과 색상 라인업을 강화한 '2026년형 아이콘 정수기 2 뉴에디션(사진)'을 출시했다. 14일 코웨이에 따르면 2026년형 아이콘 정수기 2 뉴에디션은 기존 모델의 강점인 콤팩트한 사이즈와 위생 성능은 계승하면서 사용 편의성과 디자인 완성도를 한층 강화했다. 신제품에는 코웨이 정수기만의 특화 기능인 맞춤형 온도·용량 설정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기존 온수 추출 시에는 온도가

45·70·85·100℃ 4단계로 고정돼 있었으나, 2026년형부터는 IoCare+ 앱을 통해 온수 온도를 5℃ 단위로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다. 물 양 맞춤 설정 기능도 더욱 자유로워졌다. 기존에는 앱을 통해 'MY 용량' 기능으로 한 가지 물 양만 설정할 수 있었지만, 2026년형 모델은 앱을 통해 연속 추출 외에도 추출량을 최대 3개까지 직접 구성할 수 있다. 각 용량은 120ml부터 1l까지 10ml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색상 라인업도 새롭게 정비했다.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소비자 취향과 시리즈 일관성을 함께 반영해 트렌디한 ▲푸어 화이트 ▲플래티넘 실버 ▲씨엘 블루 ▲



블룸 핑크 ▲크림 베이지 신규 컬러 5종을 적용했다. 기존 페널 그레이까지 총 6종으로 구성돼 지난 2월 출시한 '아이콘 정수기 3'와 동일한 색상 체계를 갖추게 됐다. 가로 18cm의 콤팩트한 본체에는 나노 트랩 필터 시스템이 탑재돼 녹조 독소를 비롯한 바이러스·환경호르몬·유해 중금속 등 총 94종의 유해 물질을 걸러낸다. 아울러 스마트 진단 기능이 정수기 상태와 이상 여부를 감지해 음성으로 안내하며, 앱을 통해 기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주말 장보기'로 제철 식품 합리적 구매

공영홈쇼핑, 2주간 6.2억 판로 지원 공영홈쇼핑이 매주 주말 제철 식품과 생필품을 한데 모아 판매하는 '주말 장보기' 기획전이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주말 장보기'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공영홈쇼핑 모바일에서만 나눌 수 있다. 우리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 판로를 넓히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했다. 지난 12일부터 진행한 이번 장보기에는 신비복숭아, 초당옥수수, 참외 등 제철 식품과 도마 세트, 냉동용기 등의 생필품이 마련됐다. 해당 상품을 모바일로 주문하면 5%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최대 10%까지 적립금도 지급된다. 적립금은 배송 완료 후 적립되며 유효기간은 30일이다. 지난달 29일 첫 선을 보인 '주말 장보기'는 2주간 약 6억 2000만원 어치의 판로



를 지원했다. 세탁세제, 휴지, 오징어 등 장바구니 단골 상품들이 판매 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40~60대가 전체 주문건수의 86%를 차지하며 주말 상차림을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인기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면밀히 파악해 매주 엄선된 상품을 선보임으로써 맞춤형 판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말 장보기'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 # UV-A 98% / UV-B 99% 차단
- #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x 60mm 대형 패치
- #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 #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AI 공급망 vs AI 로봇... 삼성SDS·LG CNS '물류 전쟁'

**삼성SDS AI로 의사결정 자동화
LG CNS '피지컬웍스'로 시장 공략
비용 절감·경제성·수익성 입증 과제**

국내 IT서비스의 양대 산맥인 삼성SDS와 LG CNS가 물류사업 고도화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운영과 물류 현장 내 로봇 학습을 주요 무기로 삼고 있다. 다만, 수익성 개선 또는 경제성 입증은 숙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첼로스퀘어'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첼로스퀘어'에 '에이전틱 AI 공급망'을 도입해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첼로스퀘어'는 해상·항공·내륙 운송의 견적 조회와 예약, 실시간 화물 추적, 정산 등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삼성SDS는 2011년 삼성전자의 글로벌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며 물류 부문 당치를 키워왔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물류 IT 솔루션 '첼로스'를 통해 매출 비중을 크게 확대하며 핵심 사업으로 키웠다. 2014년 코스피 입성 이후에는 일반 기업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첼



오구일 삼성SDS 물류사업부장(부사장)이 지난 2일 판교 물류캠퍼스에서 열린 '첼로스퀘어 콘퍼런스 2026'에서 키노트를 발표하고 있다. /삼성SDS

로스퀘어'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기에 나섰다. 지난해 말 기준 첼로스퀘어 가입 기업은 2만4625개다.

올해부터는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플랫폼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4월 물류 운반 전 과정의 판단 매커니즘을 자동화하는 '에이전틱 AI 공급망'을 제시했다. AI가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대체 운송 경로나 재고 조정 방안을 제시해 운송 지연과 재고 부족, 항로 차질에 따른 비용 손실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물동량 등 대외 변수에 민감한 물류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가

에 달렸다. 삼성SDS의 지난해 물류 매출은 7조3864억원으로 IT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매출의 53%를 차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1300억원으로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1.8%에 불과하다.

LG CNS는 올해 산업용 로봇 학습·운영 통합 플랫폼 '피지컬웍스'를 출시하고 로봇 전환(RX) 시장 선전에 나서고 있다. 로봇 학습과 운영을 제어해 일반적인 자동화 수준에서 현장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지능형 작업자로 끌어올리는 기술이다.

이같은 피지컬 AI 경쟁력은 제조·물류 엔지니어링 역량에서 나온다. LG CNS는



현신균 LG CNS 사장이 지난 5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 CNS RX 미디어데이 01 환영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LG CNS

1980년대 후반 LG그룹(당시 럭키금성) 주도로 미국EDS의 대규모 시스템 제어 기술을 이식하면서 탄생했다. 이를 계기로 LG전자·화학·제조 공장에서 부품 등을 자동 분류하는 소프트웨어 제어 경험을 쌓고, 이후 롯데·쿠광 등 유통 기업의 물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스마트 엔지니어링 매출을 키워왔다. 올해는 캘리포니아 물류센터, LX판토스 청라 센터에 피지컬웍스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LG CNS는 AI를 적용한 로봇의 현장 적용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최고기

술책임자(CTO) 직속 연구 조직인 '퓨처로봇릭스 랩'을 가동한지 10개월 만에 RX 이노베이션 랩을 신설했다. 앞서 개발한 로봇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로봇을 현장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플랫폼 기술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LG CNS는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로봇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RX 이노베이션 랩을 올해 4월 출범했다. CTO 직속 '퓨처로봇릭스 랩'에서 확보한 로봇 학습·제어 기술에 스마트물류 현장 경험을 결합해 외부 기업이 만든 로봇을 고객 현장에 맞게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데 무게를 둔 전략이다. RX 이노베이션 랩은 현장 분석, 사람과 로봇의 업무 분담 설계, 로봇 학습과 생산성 검증 등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기존 인력과 자동화 설비 대비 경제성과 안정성 입증은 숙제다. 초기 상용화 단계인 만큼 로봇의 작업 속도와 정확도,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주는 실증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 LG CNS는 지난해 스마트물류·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를 포함한 스마트 엔지니어링 매출이 1조193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9%를 기록했다.

/조민선 기자

mjsjo@metroseoul.co.kr



미국 검찰, 오픈AI 전방위 조사 착수

오늘 AI
오픈AI, 뉴욕주로부터 소환장 받아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

미국 여러 주의 검찰이 오픈AI를 상대로 광고와 데이터 처리, 미성년자 보호 정책 등을 들여다보는 조사에 착수했다. 상장을 준비 중인 오픈AI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방한 연기와도 시점이 맞물리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여러 주 검찰총장들이 오픈AI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뉴욕주 검찰총장 명의의 소환장을 받았으며, 회사 운영 전반과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범위는 AI 모델의 안전성을 넘어 광고 정책과 이용자 유지 전략, 소비자 데

이터와 건강정보 처리, 미성년자와 고령자 보호 정책, 딥러닝 모델 운영 방식, 내부 안전 정책 등으로 폭넓다. 특히 AI가 이용자의 의견에 지나치게 동조하는 이른바 '아첨(sycophancy)' 현상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이번 조사를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AI 플랫폼 기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한다. 챗GPT가 이용자를 어떻게 유입하고 머물게 하는지, 민감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취약 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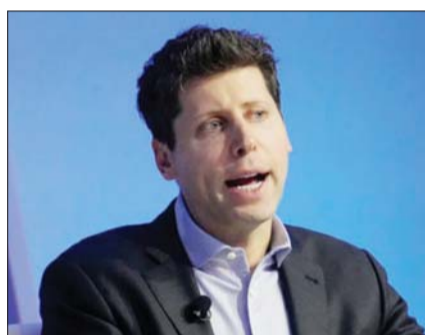
오픈AI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주 검찰총장들이 제기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연영 예측 기능과 부모 관리 도구 도입, 어린이 대상 광고 금지 등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오픈AI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관련 서류를 비공개 제출한 것으로 알

려진 시점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규제와 소송 리스크는 기업가치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저작권 침해 의혹과 이용자 정신건강 피해 논란 등 여러 민사 소송도 이어지고 있으며, 플로리다주는 이달 초 오픈AI와 올트먼 CEO를 상대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AI 서비스를 출시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부 차원의 압박은 오픈AI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말 42개 주 검찰총장 연합은 오픈AI와 메타, 앤스로픽, 구글, xAI 등 주요 AI 기업들에 챗봇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주가 xAI의 AI 챗봇 '그록'을 활용한 성적 이미지 생성 문제를 조사하는 등 생성형 AI 전반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업계는 이번 조사와 올트먼 CEO의 방한 연기 발표 시점이 맞물린 점에도 주목한다. 올트먼 CEO는 당초 이달 한국을 찾아 주요 기업들과 AI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오픈AI는 개인적 사정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2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토론에 참여했다. /뉴시스

이유로 방한 일정을 연기했다. 미국 주 검찰의 조사 착수와 뉴욕주 소환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시기와 일정 변경 발표가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일정 조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두 사안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픈AI는 공식적으로 개인적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이 성장 단계를 넘어 규제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이 기업가치의 핵심 평가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IPO를 추진하는 오픈AI도 규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유플러스
AI가 맞춤형 응원 연결 '심플 사서함' 운영
정서적 소통 경험 제공

LG유플러스가 음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제시한다. LG유플러스는 고객 참여형 캠페인 심플 사서함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심플 사서함은 고객이 익명으로 전화(ARS)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남기거나 듣는 방식의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사람 사이의 마음을 있는 고객 경험을 위해 기획됐다. 디지털 환경에서 메시지 양은 늘었지만 진정성 있는 대화와 정서적 소통이 줄어든 점에 주목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감정의 결까지 전달할 수 있는 목소리를 매개로 소통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객들은 응원 남기기, 응원 듣기 등 카테고리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응원 메시지는 '진로·취업', '직장·업무', '인간관계', '반아웃·무기력' 등 총 12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용자의 고민 상황에 보다 적합한 메시지를 제공하는 개인화 경험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관에게 응원 남기기 기능도 있다. 소방관 법인회선 우선접속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콘텐츠와 연계해 진행한다.

수집된 음성 데이터는 AI 기반으로 텍스트로 변환한 뒤 문맥을 분석해 카테고리별로 분류한다. 이후 이용자 상황에 맞는 응원 메시지를 자동으로 매칭해 제공한다. 부적절한 표현은 필터링을 통해 관리한다.

메시지 녹음 가능 시간은 약 1분 내외다. 녹음 시 이용료는 한 건당 1000원으로, 전액 소방가족희망나눔에 기부된다.

한편, 실제 이용 고객들의 반응도 뜨겁다. 공개 직후 3일 만에 1000건이 넘는 응원 메시지가 음성 사서함에 쌓였다.

/조민선 기자

MSI 2번 시드 놓고 T1 vs 젤지 '접전'

(2026 미드시즌인비테이셔널)

바론 한타 승리가 승부처

한화생명e스포츠가 '2026 미드시즌인비테이셔널(MSI)' 1번 시드를 확정하는 가운데 T1과 젤지가 14일 원주에서 2026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2번 시드 자격을 놓고 맞붙었다. '2026 LCK 로드 투 MSI'가 14일 강원도 원주 DB 프로미 아레나에서 열리는 T1과 젤지(Gen.G)의 최종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화생명e스포츠가 지난 12일 열린 1시드 결정전에서 T1을 세트스코어 3대1로 꺾고 MSI 직행 티켓을 확보한 가운데, 남은 한 장의 출전권을 두고 LCK를 대표하는 두 팀이 다시 맞붙었다.

이번 로드 투 MSI는 정규시즌 상위 6개 팀이 참가하는 킹 오브 더 힐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규시즌 1위 한화생명e스포츠와 2위 T1이 상위 라운드에 직행했고, 젤지와 KT 롤스터, Dplus KIA, 브리온이

단계별 토너먼트를 거쳐 최종전 진출을 노렸다.

이런 가운데 T1이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로드 투 MSI' 5라운드 최종전 2세트에서 젤지를 꺾고 세트스코어 1대1 균형을 맞췄다. 1세트를 젤지 내준 T1은 2세트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져왔다. 선취점을 올린 데 이어 드래곤 오브젝트를 먼저 확보하며 경기 흐름을 이끌었다. 젤지도 세 번째 드래곤 교전에서 분위기를 되살리며 추격에 나섰다. 양 팀은 중반까지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다.

승부는 바론을 둘러싼 대치에서 갈렸

다. 젤지가 먼저 바론 사냥을 시도하며 T1을 끌어들이었지만, T1이 이를 놓치지 않고 한타에서 대승을 거두며 바론 버프까지 확보했다. 이후 젤지가 본진 수비에 성공하며 한 차례 흐름을 끊었지만, T1은 다시 열린 교전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 주도권을 되찾았다.

한편 이날 원주DB프로미아레나에서 열린 '로드 투 MSI' 최종전은 MSI LCK 2번 시드가 걸린 빅매치답게 약 4500석 규모의 경기장이 전석 매진되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최빛나 기자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0주'... 투자자·운용사 모두 빈손

국내 전문투자자 증거금 전액 환불 ETF 편입 전략 수정 '불가피' 한투운용, 장내 매수로 ETF 편입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Crew Dragon)이 발사되는 모습.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를 둘러싸고 국내 투자자들과 자산운용업체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했다. 스페이스X IPO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이 최종 배정 과정에서 판매 가능한 물량을 한 주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물론 관련 ETF 편입을 준비하던 운용사들까지 모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일부 운용사들은 장내 매수로 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공모로 선제 편입하려던 당초 전략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스페이스X 편입 기대감으로 우주항공ETF에 투자자금이 몰렸던 만큼, 이번 '0주 배정' 사태를 둘러싼 투자자 혼선과 업계 후폭풍도 이어질 전망이다.

◆ETF 편입 계획한 자산운용사도 직격탄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IPO 공모 인수단(Un-

derwriter) 자격으로 국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지만 글로벌 대표주관사인 골드만삭스의 최종 물량 배분 과정에서 판매 가능한 주식을 배정받지 못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0일까지 진행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국내 개인 및 법인 전문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청약 증거금을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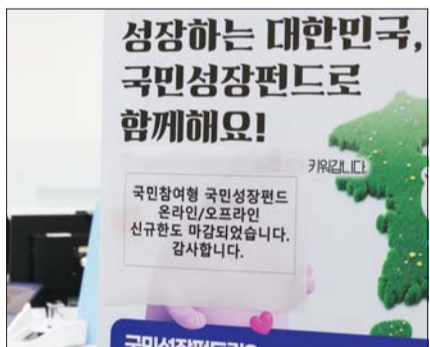
새벽 전액 환불했다. 스페이스X 공모주를 확보해 ETF와 공모펀드에 선제적으로 편입하려던 국내 운용사들의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래에셋증권이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뒤 "장중 매매 대응을 통해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 내 스페이스X 편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투운용은 스페이스X IPO 참여 사실을 공개하며 배정받은 물량을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와 '한국투자글로벌우주기술&방산펀드'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역시 TIGER 글로벌AI액티브ETF와 TIGER 글로벌AI전략인프라액티브ETF 등을 통해 IPO 물량 확보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이 최종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면서 관련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미래에셋운용은 패시브 ETF 특성상 지수 편입 일정에 맞춰 스페이스X를 순차적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국내 우주 테마 ETF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4일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우주테크 순자산은 2조 2464억원,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우주항공은 7034억원, 하나자산운용의 1Q 미국우주항공테크는 5940억원,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는 3129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는 2503억원 규모다.

◆투자자 실망감 커져... 금융당국도 경위 파악 업계에서는 절차상 문제 여부와 별개로 투자자들의 체감 충격은 상당했다고 보고 있다. 스페이스X IPO 청약은 미래에셋증권이 진행한 청약이 있더라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고 일부 우주 테마 ETF에는 스페이스X 편입 기대감에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설명서와 핵심설명서를 통해 물량 미배정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했고 미국 IPO 구조상 대표주관사의 최종 배정 재량도 명시돼 있었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실제로 단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투자설명서 상 물량 미배정 가능성은 사전에 고지돼 있었고 절차적으로도 문제는 없다"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 IPO 참여 자체에 의미를 뒀던 만큼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국민성장펀드 2차 출격... 성과 경쟁 유도

금융위원회, 6000억 규모로 출시 운용사 책임성 강화해 수익률 제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 온·오프라인 신규한도 마감 문구가 붙어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로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 1차펀드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간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열고 운용사별 투자전략과 책임운용 및 수익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 10곳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대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2차 펀드를 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진행한 1차 펀드는 닷새 만에 전량 판매됐으며, 오는 15일부터 투자 운용이 시작된다. 재정은 1차와 동일하게 1200억원이 후순위로 출자된다. 직접투자 부문 예산 1500억원 중 400억원, 인프라투자 부문

예산 4000억원 중 800억원을 활용한다. 재정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펀드 운용사는 1차와 동일하게 유지되,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하는 자펀드 운용사는 신규로 선정한다. 서민 물량 배정, 온라인 판매 비중 등 판매 관련 사항은 1차 펀드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은행·증권사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용사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참여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자펀드 운용사는 결성금액의 1% 이상을 후순위로 출자해야 한다. 펀드 누적수익률이 5년간 30%를 넘어서면 운용사가 초과 수익의 12%를 성과보수로 받을 수 있다.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기술특례상장사 신규 자금 투자, 비수도권 지역 투자 비중을 각각 40% 이상 달성하면 성과보수는 16~20%까지 확대된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펀드 자율 투자 한도를 40%까지 허용하고 코스닥벤처펀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용성과는 월간·분기별 보고를 통해 점검한다. 금융위는 한국성장금융이 매년 우수 운용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이들 운용사에 후속 펀드 및 정책성 펀드 참여 시 우대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산운용보고서에 공모펀드 수익률, 자펀드 투자내역(상위 10개 종목 및 투자 비중) 외에도 자펀드별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해 경쟁을 촉진한다. 또한 자펀드 선정 시 핵심 운용인력의 인센티브 시스템도 심사에 인력 이탈을 방지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삼행시 통장' 악용 전세사기 주의보

◆금감원 Q&A 단체계좌에 '단체' 표기 의무화

#. 임차인 김모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이름과 동일한 예금주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해당 계좌는 임대인 개인 계좌가 아닌 임의단체 명의 계좌였습니다. 임차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전세보증금을 보냈고, 결국 약 8억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로부터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뒤 B씨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고 단체 명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임차인들은 계좌주명이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보증금을 송금했고, A씨는 약 8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권 계좌주명 표기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임의단체 명의 계좌에는 계좌주명 뒤에 '(단체)'가 함께 표시됩니다. 기존에는 개인 계좌와 구별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송금 단계에서 단체 계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른바 '삼행시 통장'을 악용한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소비자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단체 명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한 뒤 임차인을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입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개인은 본인 이름으로, 동창회·친목회·동호회 등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임의단체는 단체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체명이 개인 이름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처럼 단체명을 '홍길동'으로 정하면 외부에서는 개인 계좌와 사실상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삼행시 단체

은행권은 이달 중 관련 시스템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권도 순차적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보증금 등 고액자금을 송금할 때 계약서상 이름과 예금주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계좌주명에 '(단체)'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거래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허정윤 기자

KCGI운용, '코리아종합채권 펀드' 출시

'KIS종합채권 지수' 추종

KCGI자산운용이 국내 우량 중장기채권에 투자하는 'KCGI코리아종합채권펀드'를 출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펀드는 약 2200조원 규모의 국내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KIS종합채권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채권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지수 대비 초과 수익 달성을 추구한다. 주로 기관투자자와 채권투자에 관심있는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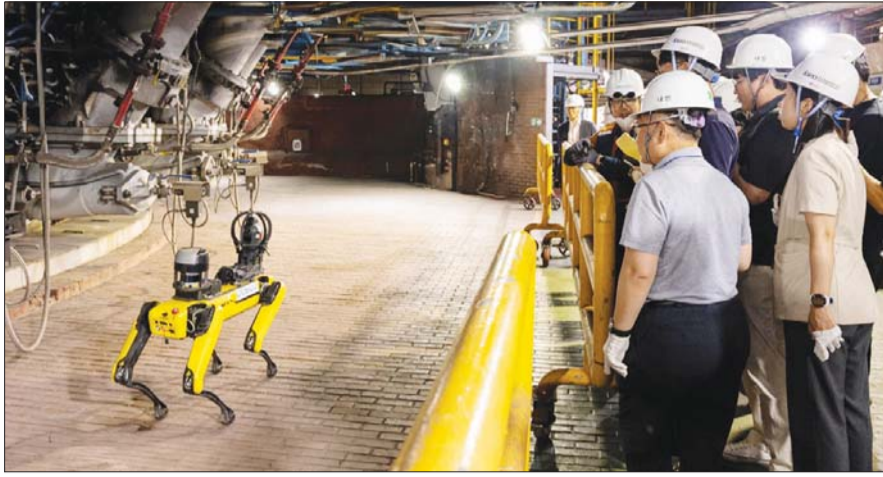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KCGI자산운용은 이번 종합채권펀드를 런칭함으로써 단기채펀드(만기 6개월 이내), 중기채(만기 2~3년)펀드와 함께 중장기채 펀드까지 채권형펀드의 듀레이션 라인업을 확대하게 됐다. 이 펀드는 신용등급 AA-이상, 잔존 만기 3개월~50년의 국내 채권을 선별하여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의 벤치마크(BM)인 'KIS종합채권지수 (AA- 이상)+ 기준금리 10%'의 6월10일 기준 평균 만

기(듀레이션)는 4.87년, 만기수익률(YTM)은 3.97%로 최근 금리 상승 영향이 만기수익률에 반영되어 있다. KCGI자산운용은 종합자산운용사로서 채권운용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기존의 채권운용팀을 본부로 격상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을 역임한 홍사욱 상무를 본부장으로 영입하고 운용 시스템을 보강해 왔다. KCGI자산운용은 "다양한 채권 전략 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고로·배터리·야드, 고위험·비정형 공정에 'AI 자율제조' 투입

K-제조업, AI·로봇 전환

포스코, KIRO 등 10개 기관과 과제 제철 공정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年 생산량 8.5만톤 늘고 불량률 낮춰 에코프로비엠, 공정 전반 AI 이식 5년치 데이터 일원화해 AI 학습 첫 무인화 공장 '다크 팩토리' 계획 HD현대중공업, 비정형 조립·용접 디지털 트윈·로봇으로 생산성 ↑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에서 사족보행 로봇이 풍구(고로에 열풍을 불어넣는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포스코



HD현대중공업 울산 중형선사업본부 선각2공장에서 로봇이 용접작업을 대신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1500도의 붉은 쇳물이 무서운 복사열을 뿜어내는 용광로 앞, 700도 고온의 검은 장막에 갇혀 내부를 볼 수 없는 배터리 핵심 소재 소성로, 사방에서 용접 불꽃이 튀는 거대한 조선소 야드까지. 한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던 고위험·극한의 K-제조업 현장이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이식받아 자율제조 생태계로 탈바꿈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주도하는 제조 AI 전환 프로젝트인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선도과제를 수행 중인 철강·이차전지·조선 등 전통 대형 제조업 현장들이 고위험·비정형 공정의 한계를 깨고 무인화 공장인 '다크 팩토리(Dark Factory)'를 향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 포스코 고로, AI로 전직하고 휴머노이드가 쇳물 뜬다

지난 11일 경북 포항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안전로봇실증센터 연구동.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이 양팔을 움직이며 쇳물 샘플링과 온도를 측정한다. 사람처럼 두 팔을 활용해 장비를 들고 측정 위치까지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실제 작업자를 연상케 했다.

포스코와 KIRO 등 10개 기관은 2027년까지 제철 공정 AI 자율 예지보전과 고

위험 작업을 위한 모바일자율로봇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그동안 1500도가 넘는 초고온 고로 내부 작업은 수십 년간 축적된 베테랑 작업자의 '경험과 감'에 의존해 왔고, 작업자가 직접 초고온의 쇳물에 접근해야 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업무였다.

이에 포스코는 복사열을 견디는 특수 외피를 입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다. 머리 부분의 열화상 카메라와 센서, 양팔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실제 작업자의 동선을 구현한다. 고로 측면에는 100개가 넘는 압력계와 500개가 넘는 온도계를 설치해 AI가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며, 고로에 열풍을 불어넣는 풍구 구역에는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 하루 12번씩 돌며 데이터를 수집한다.

박지성 포스코 1제선공장 공장장은 "로봇이 계측기를 달고 하루 12번씩 점검하며 표준화된 정량적 데이터를 모은다"며 "극한 환경에서 작업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 정비도 벨트 컨베이어 롤러의 진동·음향 데이터를 AI가 분석하는 '자율 예지보전'으로 진화했다. 기존에 작업자 4명이 30분간 하던 작

업을 로봇 1대가 5분 만에 마친다. 스마트 고로 도입 이후 연간 생산량은 8.5만톤 증가했고, 품질 불량률은 종전 13.3%에서 4.9%로 63% 개선되는 성과를 냈다.

◆ 에코프로비엠 "중국 인력 30배 용단 폭격, AI로 깬다"

글로벌 삼원계 양극재 시장을 이끄는 에코프로비엠 포항캠퍼스는 대규모 인력과 생산 설비를 앞세운 중국의 거센 추격에 맞서 '공정 전반의 AI 이식'을 선택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이날 포항 에코프로비엠 캠퍼스에서 열린 언론 공개 행사에서 "중국은 한국 대비 배터리 배출 인력이 30배 이상 많고, 우리 과학자 한 명이 한 달 동안 매달릴 일을 중국은 10명이 이상 투입돼 며칠 만에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며 "이런 격차를 극복하고 경쟁에서 앞서나갈 유일한 솔루션이 바로 AI"라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비엠은 과거 5년치(20TB 이상) 데이터를 일원화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특히 내부가 보이지 않는 700~800℃ 고온의 65m 길이 소성로 공정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고 462개 영상 인자를 정제해 AI를 학습시켰다. 그 결과 '품질예측 AI' 모델의

정확도는 무려 99.62%에 달한다. 기존에는 품질 검사에 최대 6시간이 소요됐으나, 이제는 AI가 실시간으로 품질을 예측해 이상 징후를 조기 감지한다. 핵심 원자재인 리튬의 순도 역시 자동 계측 시스템을 완성해 양산 라인에 적용했다.

현장에서는 음향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소성로 점검 AMR(자율이동로봇) '티포이'가 약 900개 포인트를 자율 순회하며 설비를 점검한다. 에코프로비엠은 2030년까지 제조가공비 30%, 사무자동화 50% 감축을 바탕으로 최초의 무인화 공장인 '다크 팩토리'를 구축해낼 계획이다.

◆ HD현대중공업, 7명이 하던 용접을 단 1명이

울산 HD현대중공업 야드에서는 선박마다 크기와 구조가 달라 자동화가 어려웠던 '비정형' 조립·용접 공정이 디지털 트윈과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 비전 센서가 작업장에 들어온 부재의 외곽선을 인식하고 설계 도면 정보와 실시간 매칭해 용접선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과거 주간 500톤이던 몰탈 소화 능력이 로봇 도입 후 주간 750톤, 야간 교대 적용 시 1000톤으로 2배 상승했

다. 과거 7명이 매달려야 했던 작업을 이제는 오퍼레이팅 룸에서 사원 1명이 태블릿 PC로 로봇 4대를 제어한다. 신형 레일형 협동로봇 시스템'은 작업자 개입 없이 스스로 이동하며 자율 용접해 기존 수작업 대비 생산성을 약 70% 향상시켰다.

또 선박 블록 인양 부품인 '러그(LUG)' 생산 공정에도 자율제조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지난해 5월부터 산업용 로봇 8대와 AMR 2대를 투입해 제작, 절단, 이송을 완벽히 자동화했다. 기존에는 작업자 6명이 하루 약 100개를 생산했으나 이제는 2명이 관리한다. 자율제조 가능 품목은 3종에서 43종(전체 물량의 약 95%)으로 늘었고, 러그 생산량은 기존 수작업 대비 87.5% 수직 상승했다.

윤대규 HD현대중공업 상무는 "국책과제를 통해 계열사인 현대로보틱스 및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유럽산 장비 대비 원가를 3분의 1로 낮췄고 기술을 내재화했다"며, "조선업은 자동화하기 어려운 분야였지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T, 월드컵 맞아 K-푸드 히스패닉 진출 도모

히스패닉 마켓 '수페리얼 그로서스'와 美 로스앤젤레스서 'K-푸드축제' 열어 멕시코 전통 만찬 한식 퓨전 메뉴 선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6 멕시코-미국-캐나다 FIFA 월드컵 개막을 맞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의 K-푸드 행사를 가졌다.

14일 공사에 따르면 aT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미 서부 최대 히스패닉 슈퍼마켓인 '수페리얼 그로서스'와 함께 'K-푸드축제(K-Food Fiesta: Taste of Korea)'를 개최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히스패닉 인구 비중(41%)이 가장 크다.

aT는 "최근 한국 농식품은 히스패닉 소비자들 사이에서 찾는 주요 품목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급변 행사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K-푸드의 히스패닉 마켓 진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촉매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은 월드컵 개막 전(멕시코 대 남아공, 멕시코시티 스타디움) 단체 응원객과 K-푸드를 찾는 방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멕시코 전통 음식에 한국의 맛을 더한 '나초 김치 샐러드', '김치 케첩 핫도그' 등 이색적인 한식 퓨전 메뉴를 선



K-푸드 Fiesta 행사장 현장. /aT

보였다. aT는 "이번에 선보인 메뉴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과 간편식(HMR)을 현지 식문화에 접목했다"며 "향후 히스패닉 마켓에서 K-푸드의 새로운 수출 효자상품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개막전 경기가 행사장 중앙에 위치한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중계됐다. 경기 전후로는 'K-팝 커버댄스 콘테스트'를 비롯해 '이날의 베스트드레서'도 선정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수페리얼 그로서스의 리차드 워드웰 대표의 소감도 전해졌다. 그는 "월드컵 개막이라는 역사적인 날에 우리 매장에서 대형 K-푸드 축제를 함께 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응원전을 계기로 더 많은 한국의 우수한 신제품들이 우리 매장에 정식 입점해 소비자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T는 이번 행사에서 얻은 소비자 피드백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내 거대 소비층으로 부상한 히스패닉 마켓 진출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간다는 계획이다.

aT의 전기간 수출식품이사는 "월드컵 개막에 맞춰 히스패닉 마켓에 K-푸드를 깊이 각인시킬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스포츠와 K-컬처를 결합한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쳐 우리 농식품의 수출 영토를 넓혀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가스공사, 천연가스 인프라 대폭 확충

주배관 5346km, 공급관리소 445개소

전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올해 6월 1일 기준 주배관 5346km, 공급관리소 445개소를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규 발전소 공급을 위한 구미복합 배관 건설을 비롯해 전남 보성군 권역 가스 공급용 주배

관(장흥~보성) 건설, 충청권(청주~서리) 환상 배관망 연장 등 굵직한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주배관은 2025년 1월 대비 140km(5206km → 5346km), 공급관리소는 12개소(433개 → 445개)가 각각 증가했다.

축축해진 전국 환상배관망과 공급관리소를 기반으로, 가스공사는 현재 34개 도시가스시를 통해 전국 216개 지자체, 2039만 9000세대(보급률 83.5%)에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인력공단, 이병훈 신임 이사장 임명

前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17대 이사장에 이병훈(68) 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사진)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9년 6월 14일까지 3년이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이 신임 이사장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15일자로 임명됐다.

이 신임 이사장은 학계와 시민사회, 정부 위원회를 두루 거친 국내 대표적인 노



사관계 및 노동·사회정책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노사관계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3년 8월까지 약 23년 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이 신임 이사장은 공공상생연대기금재단 이사장, 플랫폼노동사회적대화포럼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햐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BH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부산 센텀시티, AI관제·안전기술 실증 거점으로 조성

국토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선정 2028년까지 총 168억 투입 센텀 일대 120만㎡ 기반 조성 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연계 GPU·바우처 등 지원체계 마련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센텀시티를 인공지능 기반 도시기술 실증 무대로 조성한다. 센텀시티에 집적된 디지털 산업과 마이스 기능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생태계 구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스마트 인프라와 기업 지원 기능을 도시 공간에 결합해 민간기업이 실제 생활환경에서 기술을 시험하고 상용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전국에서는 부산을 포함한 2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는 센텀시티 일원 120만

2100㎡ 규모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비 80억원과 시비 80억원, 민간 투자 8억원 등 총 168억원을 투입한다. 특화단지 비전은 'AI 전환(AI) 시대를 선도하고 준비된 센텀(AI Era, AI-Ready: Centum)'으로 설정했다.

핵심 분야는 지능형 관제와 안전이다. 센텀시티는 디지털 산업 기반과 함께 마이스 산업, 문화·상업·관광 기능이 밀집한 부산의 대표 복합도시이다. 이에 따라 AI 기반 도시 운영기술의 개발부터 실증, 성능 검증과 제품화까지 수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았다.

사업은 부산시가 총괄한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사업 관리와 AI산업혁신지원센터 운영을 담당한다. 여기에 디토닉과 스마트플래닝, 동림티엔에스, 비에스엔시스템, 쉬모스랩 등 민간기업이 참여해 시범계획 수립과 실증 인프라 구축, AI 플랫폼 개발, 데이터 모델링, 리

빙랩 운영 등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AI 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증 인프라 고도화와 함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우수 기업 유치에 나선다. 또한 검증을 마친 기술과 서비스를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도시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AI 기반 스마트도시 산업의 거점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 데이터 기반 AI 관제·안전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술사업화(R&BD) 연계 프로그램과 사업화 바우처를 지원하고 GPU 기반 AI 모델 학습 환경도 제공한다. 한국인정기구(KOILAS) 연계 지원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교통공사

첫 도시철도 생성형 AI 챗봇

부산교통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챗봇을 선보인다. 공사는 오는 15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새 챗봇은 공사가 2022년부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운영해온 시나리오형 챗봇과 성격이 다르다. 기존 방식은 사전에 입력된 13개 유형의 질문에 맞춰 정해진 답변만 제공했지만, 이번 챗봇은 이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분석해 의도를 파악한 뒤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전남 공예페스타' 개최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남공예장작지원센터인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2026 전남 공예페스타'를 개최한다. 공예주간을 맞아 마련한 이번 행사는 지역 공예 작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로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19일에는 목공예와 천연염색을 주제로 한 심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공예품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20일과 21일에는 쪽 염색을 비롯해 목공예와 유리공예, 가죽공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나주=양수영 기자

김해시

대형폐기물 신고 QR로 간편화

김해시가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창구를 QR 코드 방식으로 뒀다. 김해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찍으면 온라인 신고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QR 코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검색창에서 신고 페이지를 찾거나 별도 앱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형폐기물은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그동안 김해시민은 지역별 청소 대행업체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뺨기 앱·웹에서 품목 선택, 배출 날짜 지정, 결제, 예약번호 부착 절차를 거쳐 신고해 왔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밀양시

하계 청년 아르바이트 모집

경남 밀양시는 지역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실무 경험과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하계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 91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15일부터 24일까지다. 시 대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올해 준계 아르바이트 참여자는 제외된다. 선발은 29일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진행된다. 근무지는 희망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경쟁률이 높을 경우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권철현 UNIST 교수(왼쪽) 유니콘 레이싱팀이 로보레이서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1위에 올랐다. /UNIST

UNIST '유니콘 레이싱', 로보레이서 우승

상위 트랙 마스터컵서 기술력 입증 인지·경로계획·제어 알고리즘 탑재

울산과학기술원(UNIST) 자율주행 연구팀이 세계 최대 로봇 학술대회 부대 경진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UNIST는 기계공학과 권철현 교수팀 '유니콘 레이싱(UNICORN Racing)'이 ICRA 2026 공식 자율주행 경진대회 '로보레이서(RoboRacer)'에서 마스터컵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으며, 12개국 이상에서 약 30개 팀이 참가했다.

로보레이서는 F1 차량의 10분의 1 크기 모형에 자체 개발한 인지·경로 계획·제어

알고리즘을 탑재해 실제 트랙에서 겨루는 대회다. 201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F1TENTH'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현재 전 세계 대학들이 자율주행 연구·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난이도에 따라 '클래식컵'과 '마스터컵'으로 나뉘었고, 유니콘 레이싱팀은 상위 트랙인 마스터컵에서 우승했다.

올해 트랙에는 경사로와 다리 구간이 새로 추가돼, 차체가 도약하거나 착지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의 자세 제어가 관건이었다. 권 교수팀은 참가팀 가운데 유일하게 3차원 라이더(LiDAR)를 탑재, 주변 환경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전략을 택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광주, 문화예술 연결·확장 해법 찾는다

내달 11일 전일빌딩245서 개최 예술인·기획자·기관 관계자 참여

광주 지역 문화예술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업과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문화예술 기획단체 아르플래닛은 예술인과 문화기획자,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광주아트살롱'을 열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연결과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문화예술 기획단체 아르플래닛은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 전일빌딩245 4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아트살롱'을 개최한다. 행사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문화기획자, 문화공간 운영자, 문화예술 기관 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해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현실을 공유하고 발전 방

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광주 문화예술, 어떻게 연결하고 확장할 것인가다. 참가자들은 특강과 발제, 테이블 공론장,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계가 마주한 과제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강은 지역 문화플랫폼 운영 경험을 가진 김중언 팩터 대표가 진행한다. 이어 김경한 이야기브릿지 대표와 조은영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팀장, 김민철 부나비즈 대표, 임채빈 극단 밝은 밤 연출가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문화기획과 지역 정책, 전통예술, 공연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고민과 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군산, 청년농업인 영농 기반 마련 지원

내달 10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소득요건 충족 청년 농업인 모집

전북 군산시는 내달 10일까지 '올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업 분야 미래 인재 육성과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농업인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영농 기반 마련과 성장을 돕는 맞춤형 혜택이

주어진다.

주요 지원 내용은 ▲영농 경력에 따른 정착 지원금(최대 3년간 월 90만~110만원, 바우처 형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최대 5억원 한도, 연 1.5% 금리, 5년 거치 20년 상환) ▲농지은행 임차 사업 등 연계 지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삼기 군산시 농업정책과장은 "청년 농업인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라며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경남관광재단, 호국보훈 관광지 5곳 추천

의병·임진왜란·6·25 현장 소개 의령·고성·통영·거제·남해 선정

경남관광재단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경남의 대표 관광지 5곳을 소개했다. 의병 정신이 살아있는 유적지부터 임진왜란과 6·25전쟁의 흔적을 간직한 공간까지 다양한 역사 현장이 추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추천지는 의령 의병박물관과 고성 당항포관광지, 통영 원문공원, 거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남해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흔적전시관이다. 의령 의병박물관은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관재우 장군과 의병들의 활약을 조명하는 공간이다. 전시와 영상 콘텐츠 등을 통해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켜낸 호국 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고성 당항포관광지는 이순신 장군이 왜선을 격파하며 승전을 거둔 역사 현장이다. 송충사와 당항포해전관에서는 이



경남 의령군 의병박물관.

순신 장군의 전술과 거북선의 활약상을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만날 수 있다.

통영 원문공원은 6·25전쟁 당시 해병대 최초의 단독 상륙작전이 이뤄진 장소다. 현재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충훈탑과 전적비가 당시 전투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월드컵 열기에 먹거리 매출 폭발... 할인·프로모션 총력전

유통가, 월드컵 특수 잡기

GS25 광화문 매출 85.7% 급증
CU, 음료·간편식 매출 3.4배 ↑
배민, 치킨 주문 875.8% 폭증
롯데마트·슈퍼, 응원 먹거리 할인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하고 유통업계가 거대한 '월드컵 특수'를 맞이했다. 경기 당일 오전부터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거리응원장과 사무실, 캠퍼스에 모여들면서 먹거리 수요가 폭발했고, 이에 유통업계는 본격적인 여름철 소비 시즌과 맞물려 대대적인 할인 기획전과 프로모션을 쏟아내며 마케팅 총력전에 돌입했다.

14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린 지난 12일, 편의점과 배달 앱을 중심으로 응원 먹거리 수요가 폭증하며 관련 매출과 주문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대표팀의 경기가 열린 오전 시간대, 서울 광화문광장 등 거리응원 구역 인근의 편의점들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GS25의 광화문 인근 점포 매출은 일주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가 열린 12일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시민들이 대형 스크린으로 중계방송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 /뉴스시

일 전보다 25.1% 증가했으며, 경기 전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85.7% 급증했다. 거리응원객들이 몰리면서 무알코올 맥주 매출은 14.6배 뛰었고, 일반 맥주와 소주도 각각 5.9배, 2.8배 늘었다. 얼음컵과 차킨, 스낵류는 물론 돗자리와 보조배터리 같은 응원 용품 판매도 크게 증가했다. CU 역시 전주 대비 매출이 3.4배 늘었으며, 얼음과 아이스 음료, 스포츠음료가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점

심을 거른 직장인들의 수요로 김밥과 삼각김밥 등 간편식 매출도 3배 안팎 성장했다. 세븐일레븐 광화문 인근 점포 매출은 4.2배 증가했고, 우산 판매량은 24배 급증했다.

배달의민족에서도 오전 시간대 이례적인 주문 증가가 나타났다. 경기 당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주문 수는 전주 동요일 대비 51.5%, 전년 대비 65.4% 늘었으며, 경기 직전인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는 90.6% 급증했다. 치킨 주문은 전주 대비 875.8% 증가해 약 10배 성장했고, 피자 와 족발·보쌈도 각각 220.8%, 97.9% 늘었다. 이러한 수요는 광화문뿐 아니라 여의도, 을지로, 강남 등 오피스 상권과 대학가까지 도심 전역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이처럼 월드컵 열기가 유통 시장을 달구자 유통업계는 응원 수요와 여름 소비를 겨냥한 대규모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축구 특수와 여

름 성수기에 맞춰 차킨, 버거, 디저트 등 100여개 인기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배민 먹을복 페스타'를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간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롯데백화점이 오는 28일까지 공식 후원사 비자(Visa)와 손잡고 북중미 월드컵 공식 굿즈와 축구공을 선착순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고 잠실 롯데월드몰에 기념 촬영 구역을 운영한다.

대형마트들은 경기 관람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 할인에 사활을 걸었다. 롯데마트는 오는 17일까지 월드컵 응원 먹거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수박 전 품목을 할인 판매하고, 천도복숭아 전 품목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GAP·AI선별 고당도 제주 하우스 감귤'도 회원가로 선보인다.

롯데슈퍼도 같은 기간 응원 먹거리 할인전을 연다. 김치집, 팝콘, 식빵, 아이스크림 등 간편 먹거리와 함께 '롤&김밥 닭강정 세트', '패밀리 초밥', '큰치킨' 등 델리 상품을 선보인다. 삼겹살·복숭, 외규, 오징어, 장어 등 신선식품은 최대 반값 할인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고유가·고환율 부담 커지자 식품업계 '비상경영' 돌입

중동전쟁 장기화에 원가 부담 확산
포장재·운임·환율 부담 동시 확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물류비 상승 여파가 국내 식품업계를 덮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원가 부담 누적과 내수 부진이 겹치자 식품업계는 상당수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을 비롯해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롯데칠성음료, 풀무원 식품 등 국내 주요 식품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전쟁 장기화 대응을 위한 식품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포장재와 에너지, 물류비, 원재료 가격의 전방위적인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며 식품산업 전반에 퍼진 위기감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10일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중동전쟁 장기화 대응을 위한 식품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중동전쟁 직후인 3~4월에는 포장재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량이 평시 대비 70% 수준까지 급감하면서 수급에 큰 차질을 빚었다. 이달 들어 평시의 85~90%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포장재 가격 자체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업계의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GS25, 무더위 앞두고 보양식 조기 선행

예년보다 3주 앞당겨 상품 운영
장어덮밥·통닭 등 라인업 확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이른 무더위와 간편 보양식 수요 증가에 맞춰 보양식 상품 출시 시점을 예년보다 약 3주 앞당겼다고 14일 밝혔다. GS25는 올해 삼계탕 중심이던 보양식 라인업을 장어덮밥, 전기구이 통닭, 스킨노기탕, 갈비탕, 닭볶음탕 등으로 확대했다.

GS25가 지난해 복날 시즌 보양식 매출을 분석한 결과, 삼계탕을 제외한 보양식 메뉴 매출 비중은 61.2%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7%포인트, 2023년과 비교하면 29.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장어와 치킨 메뉴가 높은 판매 비중을 기록하며 보양식 수요 다변화 추세를 보였다.

올해 주력 상품은 '한마리민물장어덮밥'과 '전기구이한마리통닭'이다. 한마리



GS25가 복날 성수기를 한 달여 앞두고 보양식 상품 확대에 나섰다. GS25는 변화된 소비 추세에 삼계탕 중심이던 보양식 라인업을 '장어덮밥', '전기구이한마리통닭' 등 비(非)삼계탕 메뉴로 다각화했다. /GS리테일

민물장어덮밥은 장어를 찌고 숙성한 뒤 양념을 발라 굽는 과정을 세 차례 반복해 풍미를 높인 상품이다. 전기구이한마리통닭은 오븐 조리 방식으로 기름기를 줄였으며 찹쌀밥과 하니머스타드, 소금을 함께 구성했다. /김서현 기자

롯데마트, 호주산 와규 최대 40% 할인

퀵랜드산 소고기 50여 품목 할인

롯데마트는 오는 24일까지 전 점에서 호주 퀵랜드 주정부 한국대표부와 협력해 퀵랜드산 와규 및 일반 소고기 50여 품목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 와고메 와규 윗등심살(100g)과 와고메 와규 설깃살(100g)은 엘포인트 회원 대상 40% 할인 판매하며, 와고메 와규 흥두깨살(100g)과 와고메 와규 부채살(100g)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퀵랜드산 소고기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제타플러스 서울역점, 제타플러스 잠실점, 그랑그로서리 은평점, 그랑그로서리 구리점 등 4개 점포에서 호주산 소고기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일반 호주산 소고기 할인 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롯데마트는 오는 24일까지 '호주산 양지 국거리용(300g)'과 '호주산 앞다리살 불고기용(300g)'을 엘포인트 회원 대상 각 2000원 할인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임금 교섭 앞두고 연쇄 갈등 우려

>> 1만 '호실적 vs 원가급등...'서 계속

더 큰 문제는 현재 국내 식품-유통업계가 마주한 대외 경영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물류비 상승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내실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식품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주요 식품기업들은 포장재와 에너지, 원재료 가격의 전방위적인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호소했다. 음료업계는 알루미늄 캔과 페트병 등 포장재 가격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고, 라면업계 역시 팜유와 대두유 등 필수 유제품 가격 상승 부담을 안고 있다. 소비자 물가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원

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제때 반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원가 압박과 내수 부진 속에서 상당수 기업이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현재 농심 등 주요 식품기업들도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 오리온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에는 해태제과, 파리바게뜨, 풀무원, 동서식품 등 주요 식품업체 노조가 대거 참여하고 있어, 이번 오리온과 신세계의 갈등 양상이 유통-식품업계 전반의 도미노 파업이나 연쇄 갈등으로 번질지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U, 라이즈 캐릭터로 K팝 팬덤 잡기 나서

CU가 그룹 라이즈(RIIZE)의 캐릭터 '리틀라이즈(LITTLE RIIIZE)' IP를 활용한 협업 상품을 선보이며 K팝 팬덤 공략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K팝 팬덤의 소비 문화가 음반 구매를 넘어 아티스트 IP 기반 굿즈와 협업 상품으로 확대되면서 CU도 관련 상품군을 강화하고 있다. CU에 따르면 K팝 아티스트 협업 상품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21.5% 증가했으며, 올해 1~5월에는 40.7% 늘었다. CU는 라이즈의 두 번째 미니앨범 'II(투)' 발매를 기념해 리틀라이즈 IP를 활용한 빵 3종, 마카롱 2종, 캔디 1종 등 총 6종을 오는 17일부터 순차 출시한다. /김서현 기자

현대백, 무역센터점서 글로벌 가구페어 개최

현대백화점은 오는 21일까지 무역센터점에서 세계 각국의 유명 가구 브랜드 상품을 소개하는 '글로벌 퍼니처 페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스위스, 핀란드 등 7개국의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19곳이 참여한다. 소파, 의자, 책상 등 다양한 가구와 인테리어 상품을 선보이며, 미국 오피스 가구 브랜드 '스탈케이스',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보로', 영국 조명 브랜드 '툼 디슨' 등이 대표 참여 브랜드다. 행사 기간 고객들은 2층부터 7층까지 층별로 마련된 브랜드 쇼룸에서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7층에서는 스탈케이스의 의자와 책상을 선보인다. 스탈케이스는 의자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우주의학... K-제약 메가 트렌드로

**네오이문텍, 후보물질 ‘NT-17’
영장류 기반 실험 준비 중**
**엔지켐생명과학, ‘EC-18’ 활용
조혈계세포·위장 손상 개선 연구**
**근감소증·인공심장·혈압계 등
무중력 환경, 산업 패러다임 전환**

지난 12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시장 나스닥에 글로벌 우주 항공 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시선도 ‘우주’로 향한다. 스페이스X의 독주는 미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우주 공간의 상업적 가치를 증명하는 동시에 우주 의학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됐다. 1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개발이나 미세 중력과 우주 방사선이라는 특수 환경을 활용한 차세대 신약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적응증은 우주 탐사 시 마주하게 되는 고선량 방사선 피폭에 대한 치료제로 급성 방사선 증후군(ARS)이 있다. 네오이문텍은 자사의 T 세포 증폭제 후보물질 ‘NT-17’을 ARS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애



‘휴먼 인 스페이스’

/보령

니멀 툴’을 적용해 영장류 기반 실험을 준비 중이다. 이는 사람 대상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특성상 동물시험만으로 효과를 입증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FDA 및 미국 생물학의학첨단연구개발국(BARDA)과 사전 미팅을 완료하며 정부 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엔지켐생명과학 역시 신약후보물질 ‘EC-18’을 활용해 조혈계 세포 감소 및 위장조직 손상을 개선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경구투여와 실온보관이 가능해 현장 사용에 적합한 특성을 가졌으며, 미국 FDA 동물 규칙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마우

스 모델 연구를 거쳐 원숭이 모델 실험을 위한 설치류 효능 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 우주 환경을 활용한 융합 연구와 장비 개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엠에프씨는 고려대 의대 마이오카인 융합 연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화성 등 심우주 탐사에 필수적인 ‘우주인 근감소증 치료제’ 공동 개발에 나섰다. 한림대학교 의료원의 박찬홍 미세생리시스템연구소장은 차세대중형위성 3호에 탑재될 첨단 바이오 연구 탑재체 ‘바이오캐비넷’을 개발했다. 이는 우주 공간에서 자동으로 인간의 인공 심장을 제작하고 줄기세포

분화를 확인하는 우주 의료 기술을 실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의료기기 기업 스키랩스의 경우, 미세 중력 환경에서 자사의 커프리스 반지형 혈압계 카트 비피’ 경쟁력을 입증해 주목받은 바 있다. 스키랩스와 영국 캠브리지대의 공동 연구에서 중력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환경에서도 카트 비피는 신뢰할 수 있는 혈압 데이터를 지속 수집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이 우주정거장(ISS)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는 전략적 움직임도 활발하다. 보령은 미세중력을 활용한 신약 개발을 추진하기에 앞서 2022년부터 ‘휴먼 인 스페이스’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4년에는 미국 우주기업 액시엄 스페이스와 합작해 ‘브릭스 스페이스’를 설립하는 등 우주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했다. 우주의학 전문기업 스페이스린텍은 독자 개발한 연구 모듈 ‘BEE-PC1’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자동 단백질 결정화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지상으로 회수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처럼 지상에서 불가능했던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 무중력 환경은 제약 산

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메가 트렌드로 꼽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우주 환경을 활용한 바이오의약 혁신 기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에서의 의약품 개발은 항상 중력이라는 상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세포가 바닥으로 가라앉거나 결정이 불균일하게 자라는 한계가 있다. 우주 무중력 환경은 이러한 중력 방해성의 편향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며, 신약 개발의 전임상 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단축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우주항공청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K-우주바이오 국가 컨소시엄’을 결성해 중복 투자를 방지해야 한다”며 “NASA·JAXA 등과의 국제협력 거점 확보, ISS 2030년 은퇴 이후를 대비한 민간 우주정거장 슬롯 선제 확보, 식약처-FDA 협력을 통한 ‘우주 유래 데이터 활용 의약품 승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 K우주바이오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셀트리온, 차세대 다중항체 신약 효능 입증

‘CT-P72/ABP-102’ 성과 발표
암세포 대한 높은 선택적 반응 보여
고형암 적응증 확장 가능성 시사

셀트리온이 차세대 다중항체 신약 ‘CT-P72/ABP-102’의 우수한 효능과 내약성 등을 입증하고 다양한 고형암에 대한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 이중특이항체 & T세포 인게이지서 및 사우스 코리아’에서 ‘우수한 치료지수(TI)의 HER2 TCE ‘CT-P72/ABP-102’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CT-P72/ABP-102는 시험관 내(In vitro) 세포독성 시험에서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이하 HER2) 고발현 종양에 대해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인 반면, HER2 저발현 세포에 대

한 살상력은 현저히 감소해 암세포에 대한 높은 선택적 반응을 보였다. 또 영장류를 이용한 약동학(PK) 및 독성 시험에서 고용량인 80mg/kg까지 우수한 내약성을 확인했다. 또한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위암을 이식한 동물에서 종전 약물의 효능을 넘어서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다른 HER2 고발현 방광암, 담도암, 유방암 등에서도 우수한 항암 효과를 검증해 고발현 고형암 치료제로서 다양한 적응증 확장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유방암의 경우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미세생리학적 시스템(MPS)에서도 면역세포인 T세포(T-cell) 침투 등 강력한 항암 효과를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CT-P72/ABP-102 본 임상에 속도

를 가해 기존 HER2 고발현 대상 치료제(ENHERTU)의 내성과 내약성 한계를 극복하고, 미중독 의료수요를 해소하는 베스트인 클래스(계열 내 최고 의약품) 신약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임상 1상 승인을 획득하고 현재 임상 개발 본격화를 위한 참여 환자 선별 단계에 있으며, 연내 FDA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다중항체 항암신약 CT-P72/ABP-102는 전임상을 통해 HER2 고발현 타깃에 대한 높은 항암 효능과 우수한 내약성을 확인했다”며 “이와 함께 다양한 고형암에서도 치료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임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기존 약물보다 우수한 베스트인 클래스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일동제약그룹, 마이크로바이옴 성과 알려

‘프로바이오타 아메리카’ 참가

일동제약그룹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계열사인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9~11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2026 프로바이오타 아메리카’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프로바이오타 아메리카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국제 박람회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행사장 내에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등을 소개하며 최근 도출한 학술 연구 성과를 포스터 발표했다. 주최 측으로부터 선정된 발표 주제는 ▲바실러스 코아글란스 IDCC 1201(SPO RABLE)의 수면 질 개선 관련 동물 실험 및 인체 적용 시험 ▲한국인 질 유래 신규 균주인 락타카제이바실러스파라카제이 IDCC 3402의 안전성 연구 등 총 3건이다. 특히 바실러스 코아글란스 IDCC 1201의 경우 최근 국제 학술지인 뉴트리언트에 게재된 바 있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2026 프로바이오타 아메리카’에서 기업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일동제약그룹

IDCC 1201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 연구 결과와 해당 균주를 활용한 자사의 기능성 소재를 연계해 설명함으로써 글로벌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회사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연구개발 역량과 사업 경쟁력을 가능하게 됐다”며 “연구 성과를 토대로 기능성 소재 및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CJ올리브영, ‘옴니채널’로 美 시장 공략

LA 웨스트필드 센추리시티 매장 열어
가성비 팬덤서 프리미엄 상권으로

CJ올리브영이 미국 현지 유통 공룡인 아마존과 글로벌 편집숍 세포라의 틈바구니에서 ‘온·오프라인 통합(옴니채널)’ 전략을 앞세워 미국 주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리브영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대표적 복합쇼핑몰인 웨스트필드 센추리시티에 미국 2호 매장 ‘센추리시티점’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점은 ‘가성비 팬덤’ 확장에서 ‘프리미엄 상권’ 돌입으로 체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1호점인 패서디나점이 K

뷰티에 친숙한 Z세대 현지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알리는 ‘쇼케이스’ 역할이었다면 센추리시티점은 글로벌 고소득층을 정조준한 확산형 매장이자, 센추리시티점이 위치한 곳은 구매력이 높은 고소득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K뷰티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부촌 베벌리 힐스와 럭셔리 쇼핑 거리 로데오드라이브에서 차로 5~10분 거리에 불과하다. 또 벨에어, 브렌트우드 등 고급 주거 지역이 밀집해 있다. 우선 올리브영은 오프라인 체험을 통한 온라인 고객의 락인 전략을 펼친다. 그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아마존 등 이커머스를 통해 정보 없이 ‘깜깜이 구매’를 해왔



미국 센추리시티점 외부 전경. /CJ올리브영

다면, 올리브영은 이들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끌어내 직접 체험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이날 현장을 방문한 현지 헤어디자이너 에릭 번은 “평소에 아마존에서 K뷰티 제품을 구입했는데 매장이 생기기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청하 기자

노브랜드버거, 북중미 미식 담은 한정 메뉴

서울 성수동 성수랩점서 팝업스토어

신세계푸드와 버거 브랜드 노브랜드버거가 글로벌 소스 브랜드 타바스코와 손잡고 북중미 미식 문화를 담은 시즌 한정 신메뉴 2종을 선보였다. 이번 신메뉴는 멕시코 타코와 아메리칸 바비큐 등 북중미 대표 음식에서 영감을 받아 버거 형태로 재해석한 ‘아보카도 타코’와 ‘스모크 바비큐’다. ‘아보카도 타코’는 직화 패티에 아보카도 슬라이스와 갈릭 사우어소스, 바삭한 나초칩, 타바스코 파카딜로 소스를 더해 타

코 특유의 풍미와 식감을 구현했다. ‘스모크 바비큐’는 미국식 바비큐를 콘셉트로 한 메뉴다. 직화 패티에 훈연 향을 입힌 폴드포크와 코울슬로, 타바스코 히커리 소스를 조합해 풍부한 육향과 식감을 강조했다.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서울 성수동 성수랩점에서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글로벌 로컬 식당을 연상시키는 콘셉트로 꾸며졌으며, 방문객들은 타바스코 할라피뇨 핫소스, 치포틀레 소스, 오리자널 핫소스, 스키피온 소스 등 4종을 취향에 맞게 조합해 즐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K푸드, 세계인의 먹거리

글로벌 시장의 확장 and 현지화 전략

2026년 6월 17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 행사명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 주제 K푸드, 세계인의 먹거리: 글로벌 시장의 확장 and 현지화 전략
- 일시 2026년 6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등록 사전 등록시 무료(100명 선착순, 현장등록 11만원)
- 문의 2026 푸드이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푸짐한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강연	14:10 ~ 14:40	유재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 :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14:40 ~ 15:10	박수영 해양수산부 수출공진흥과 사무관 : 2026 수산식품 수출전략
	15:10 ~ 15:40	정찬기 대상 글로벌김치마케팅팀장 : 종가, 식품업계의 하이닉스를 꿈꾸다
	15:40 ~ 16:10	윤명량 풀무원 글로벌마케팅 총괄본부장 : 글로벌 K-Food 트렌드와 지속가능 식품의 미래
	16:10 ~ 16:40	안병익 식신 대표 : 식신 Si 데이터로 본 외국인이 찾는 k푸드
16:40 ~ 17:00	연윤열 (사)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 Si와 푸드테크가 만드는 K-푸드 2.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 농협중앙회와 농촌 상생 활동

CJ대한통운은 농협중앙회와 '농촌 상생 확대 및 물류 전문성 활용 상호 협력' 추진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이 함께 농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줄 왼쪽 7번째부터)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HMM 임직원, 저소득층 아동 교육 환경 개선

HMM 임직원들은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의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벽화 그리기 봉사와 더불어 HMM은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등 총 1000만원의 후원금을 함께 전달했다. /HMM



마사회, 과천시민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 마련

한국마사회가 지역 시민들을 위한 가족단위 행사를 마련했다. 가족 복지를 증진하고 말산업을 활용한 차별화된 여가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일 경기 과천시민 초청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마사회의 과천시민 초청 행사 모습. /마사회



아디다스 바이브, 김재원과 남성 향수 시장 공략

아디다스 향수 브랜드 '아디다스 바이브'가 국내 젊은 남성 향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코티코리아와 LG생활건강은 아디다스 바이브 브랜드 모델로 배우 김재원을 발탁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우 김재원이 '아디다스 바이브'를 소개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교원 웰스, '신신당부' 시리즈 1300만 뷰 돌파

교원 웰스(Wells)의 웰니스 토크쇼 '신신당부' 시리즈가 누적 조회수 1300만회를 돌파했다. 14일 교원 웰스에 따르면 신신당부는 자사의 브랜드 앰배서더 신애라가 생활 속 웰니스 노하우를 공유하는 토크쇼 형식의 유튜브 콘텐츠다. /교원

르망 무대 밝은 제네시스... 퍼포먼스 브랜드 도약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 GMR-001 적용 스페셜 리버리 공개

제네시스 브랜드가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인 '르망 24시간' 하이퍼카 클래스에 첫 출전에 한국 모터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작성했다.

1923년 창설돼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회에 도전장을 내민 제네시스는 유럽 4개국 추가 진출을 발표함과 동시에 달려십 판매 체제를 통한 판매량 확대에 북미에 이어 유럽 시장 공략에 힘을 쏟는다는 전략이다. 이번 대회는 13일(현지시간)부터 14일 까지 개최되며 약 14km 길이 서킷을 24시간 동안 주행해 가장 긴 거리를 달린 팀이 우승한다.

호세 무노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은 "르망 24시간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퍼포먼스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라며 "레이스를 통해 얻은 경험은 향후 마그마 퍼포먼스 차량 개발과 사업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고



제네시스 스페셜 리버리가 적용된 GMR-001 #17(왼쪽), #19.

말했다.

제네시스는 르망 24시간 데뷔를 앞두고 하이퍼카 'GMR-001'에 적용할 스페셜 리버리도 공개했다. 이번 리버리는 지난해 공개된 GMR-001 하이퍼카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차량 전면의 마그마 오렌지에서 후면의 짙은 레드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을 적용해 고성능 레이싱카의 속도감과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차량 측면에는 한글 '마그마' 레터링을 적용했다.

제네시스는 르망 현장에서 '마그마 GT 콘셉트'의 실내 디자인과 '마그마 GT3 콘셉트'도 공개했다.

마그마 GT 콘셉트는 2인승 럭셔리 그랜드 투어러로, 드라이버 중심 설계와 아날로그 감성을 강조한 실내 구성이 특징이다. 디지털 정보는 최소화하

면서 직관적인 조작 환경을 구현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된 마그마 GT3 콘셉트는 GT3 규정을 반영해 개발한 레이싱 전용 콘셉트 모델이다. 공력 성능과 냉각 효율, 열 관리, 내구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루크 동커블게 현대차그룹 글로벌 디자인본부장 겸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CO)는 "마그마 GT 콘셉트와 마그마 GT3 콘셉트는 제네시스가 지향하는 퍼포먼스 방향성을 각각 도로와 레이스 환경에서 보여주는 모델"이라며 "제네시스 퍼포먼스 브랜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제네시스는 모터스포츠 활동과 함께 유럽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에서 판매 중이며, 내년에는 폴란드·오스트리아·포르투갈·덴마크에 진출해 유럽 11개국으로 판매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미그룹, 첫 ESG 보고서 발간

그룹 차원 지속가능경영 강화 ESG경영위 중심 의사결정 구축

한미그룹이 지주사를 중심으로 전 계열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를 강화한다.

한미그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한 올해 첫 번째 ESG 보고서를 발표했다. 14일 밝혔다.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의 각 보고서는 국제 공시 기준 GRI를 비롯해 ISBB, ESRS 등에 따라 작성됐다. 또 영향 중대성과 재무 중대성을 함께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도입해 기업 활동의 환경·사회적 영향 및 외부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처음 발간한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ESG 보고서는 기존 개별 회

사 중심의 ESG 활동을 그룹 차원의 수준으로 확장해 담았다. 특히 사업장 안전보건, 고객 안전, 윤리준법경영, 정보보안 등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각 이슈별 대응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미그룹은 ESG 경영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ESG경영위원회 중심 의사결정 구조를 새롭게 구축해 기후 변화, 인권, 안전, 윤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기존 한미약품 중심으로 발간해오던 ESG 보고서를 한미사이언스까지 발간함으로써 그룹 차원의 ESG 경영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제약산업 전반의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ESG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경영을 고도화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원F&B, 1400억 투입 제2공장 가동

'프로틴 넥서스'로 글로벌 공략 속도

동원F&B가 1400억원을 투자한 신규 생산기지를 가동하며 단백질 식품 사업 확대와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수산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연제품부터 가정간편식(HMR)까지 생산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동원F&B는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에 진천 제2사업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총 1400억원이 투입된 진천 제2사업장은 연면적 8000평(건축면적 4400평), 지상 2층 규모의 첨단 생산시설이다.

이번 준공으로 동원F&B는 기존 진천 제1사업장의 리챔(캔햄), 그릴리(냉장햄) 등 육가공 제품에 이어 제2사업장에서 어묵·맛살 등 냉장식품과 볶음밥·치킨 등 HMR을 생산하는 단백질 식품 생산 플랫폼 '프로틴 넥서스(Protein Nexus)'를 구축했다. 기존 육류 단백질뿐 아니라 수산 단백질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동원F&B가 단백질 식품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낙점한 것은 글로벌 시장



동원F&B 진천사업장 '프로틴 넥서스(Protein Nexus)' 전경 /동원F&B

성장세 때문이다. UN 식량농업기구(FAO) 등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는 100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단백질 수요는 2010년 대비 7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육류를 대체할 지속가능한 단백질원으로 수산 단백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진천 제2사업장은 어육 함량을 80% 이상으로 높은 프리미엄 어묵과 맛살 생산에 주력한다. 하루 최대 40톤, 약 13만 개 생산이 가능하며 첨단 설비를 도입해 식감과 수율 등 품질 경쟁력을 강화했다. 동원F&B는 앞서 출시한 '리얼 판자 크랩스'의 판매 호조를 통해 프리미엄 연제품 시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진천 제2사업장을 글로벌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차 공모

해수부, 내달 3일까지 신청

해양수산부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2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의 가격에 따라 선가의 30%에서 60%까지 지원한다. 선사는 해당 선박의 운영을 통해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건조비를 상환 후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현재까지 현대화 펀드를 통해 연안여객선 8척과 연안화물선 3척 등 총 11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있다. 그중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 코리아프라이드(백령-인천) 등 6척의 연안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되어 항로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10척 중 5척이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건조된 대형카페리 선박이다. 이들 선박은 척당 750~1,300여 명의 대규모 여객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노선 탑승객의 76%를 분담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상 교통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선박 건조 비용 증가로 신규 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화 펀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선가가 150억 원 이하일 경우 60%, 15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일 경우 50%, 3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30%를 지원하는 등 구간별 선가 기준을 2.5배 상향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 부음 ▲ 송석례씨 별세, 김지수·김덕수(전 여신금융협회장)·김두수·김영일·김영선씨 모친상, 최주락씨 빙부상, 최미숙·원희숙·이연희씨 시모상 = 13일, 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202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042-600-6666
- ▲ 이현숙씨 별세, 조용호(전 경남신문 부사장)씨 부인상 = 13일 오후 8시, 경남 창원시 창원한마음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6일 오전 7시 30분. 055-225-1200
- ▲ 이춘우씨 별세, 이상조·이상준·이상현(스푸트니크 한국특파원)씨 부친상 = 13일 오후 7시 49분,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5일 오전 11시 3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2650-5121
- ▲ 김정희씨 별세, 김영춘(김앤장 법률

- 사무소 고문)·미옥·미란 씨 모친상 = 13일 오후 3시, 충남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6일. 042-280-8181
- ▲ 김순안씨 별세, 조은혜(OSEN 기자)씨 조모상 = 13일, 보은요양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30분. 043-542-4440
- ▲ 김영옥씨 별세, 박진홍(더팩트 대구 경북취재본부장)·박진혁(사업)씨 모친상, 서병길(변호사)·장수찬(의사)씨 장모상 = 14일 오전, 경북 경주전문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16일 오전 6시 50분. 054-744-4000
- ▲ 김현배씨 별세, 김지훈(그룹 크나큰 멤버)씨 부친상 = 13일, 화성함백산장례식장 2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35분, 장지 미정. ☎ 031-293-4244

AMERICCIINO

Original Espresso Cream Coffee



아메리치노 라떼
Americcino Latte



아메리치노
(오리지널 / 스위트)
Americcino (Original / Sweet)



대여금 변제충당과 소멸시효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 중 어떤 채무를 변제할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가 이뤄진다.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우선 충당된다.

채무 전부가 이행기에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이자율이 높은 채무 등)의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 변제이익도 같다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에 충당된다.

그런데 최근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다고 봐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었다.

원심(항소심)에서는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채무

자의 변제이익이 많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변제제공 당시 가장 최근에 성립한 채무가 소멸시효가 가장 나중에 완성될 것이라고 보아 위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대법원은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규정을 보면, 이행기 도래 여부와 변제이익을 별개로 취급하고 있어 변제이익을 소멸시효 기간의 장단으로 판단할 수 없고,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등 사후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및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와 먼저 완성되는 채무로 변제이익이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시효기간의 길고 짧음만으로는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한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변제를 하면 이는 특정 채무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지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아 모든 채무에 관해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채무자가 다수의 채무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특정하지 않고 변제했다면, 그 자체가 모든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실무상 채무자의 일부 변제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례는 소멸시효와 변제이익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법정변제충당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채무자의 일부 변제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재확인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변제충당과 소멸시효 중단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바른

빚투와 가계부채



**김지수첩
김주형 (금융부)**

빚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길을 바꿨다. 가계부채 관리의 초점이 주택담보대출에 맞춰진 사이 돈은 다른 통로로 흘렀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줄었지만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권에서는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시기 증시에서는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집을 사기 위한 빚은 조이고 있지만, 주식을 사기 위한 빚은 다른 이름으로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투자자는 개인의 선택이다. 상승장을 보고

기회를 잡으려는 마음까지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빚을 낸 투자가 개인의 판단으로 시작돼도, 그 후폭풍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가가 오를 때 신용은 수익률을 키우지만, 주가가 흔들릴 때는 손실의 폭을 키운다. 반대매매가 늘고 소비 여력이 줄면 그 부담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로 번진다.

가계부채 관리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택담대를 누르면 대출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대출, 증권사 신용거래로 옮겨갈 수 있다.

정책이 한쪽 문만 바라보는 사이 다른 문으로 위험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총량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채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목적의 돈이 늘고 있는지까지 봐야 한다.

기타대출은 주택담대보다 위험 신호가 늦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 신용대출과 한도대출은 생활자금인지, 투자자금인지, 기존 부채를

돌려막기 위한 돈인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금융당국도 뒤늦게 은행권 자율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고액 연방자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 같은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필요한 조처다. 다만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빚투의 유혹을 막기 어렵다. 자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는 한 돈은 언제든 우회로를 찾는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이기 전에 금융 시스템의 문제다. 집값을 자극하는 대출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더 비싸고 더 짧고 더 불안정한 빚이 투자 열풍을 타고 늘어날 때 위험은 오히려 더 빨리 커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빚투에 나선 개인을 향한 훈계가 아니다. 가계부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위험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보는 정책의 시야다. 물길을 막으려면 둑만 높여서는 안 된다. 물이 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한다.

/gh47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5일 (음 5월 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역경 없이 보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운세입니다. **60년생** 멀리 내다보세요. **72년생** 사세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84년생** 바라는 직종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49년생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61년생**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73년생** 병자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병입니다. **85년생** 여건은 모든 일에 좋지 않으니 자중하세요.



50년생 여자를 주의하세요. **62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74년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천천히 건너세요. **86년생** 남자아이를 낳게 되며 아이가 다소 약한 것이 흠입니다.



51년생 여행을 가도 실속이 없고 피곤합니다. **63년생** 문단속과 물건 관리에 유의하세요. **75년생** 배우자나 연인과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7년생**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52년생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주의하세요. **64년생** 시비가 있으면 싸우지 말고 피하세요. **76년생** 때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88년생** 아직은 행동하기 보다는 좀 더 참는 게 좋습니다.



53년생 웃음이 만발하는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65년생**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겠습니다. **77년생** 다칠 수 있으니 행동과 안전에 주의하세요. **89년생** 이성과의 싸움은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54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66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차근차근 성취하세요. **78년생** 술집 가까이 가지 마세요. **90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55년생 구설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67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는 운입니다. **79년생** 노력하지만 보람없이 무너집니다. **91년생** 수심만 가득하다 하겠습니다.



56년생 모든 것이 순탄한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0년생** 이성문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지금은 뒷 본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57년생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9년생** 다른 사람보다는 본인 일에만 집중하세요. **81년생** 성공한 추진보다는 기다림이 더 필요합니다. **93년생**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8년생 싸우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70년생** 천천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길합니다. **82년생**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94년생** 운이 길할수록 주위의 시샘도 함께 주의하세요.



59년생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71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길합니다. **83년생**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95년생** 사방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금값의 향방

얼마 전까지 금값은 투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금값이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할 만큼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이다. 순금 한 돈 가격은 80만 원을 넘는 지 오래다. 예전에는 금을 결혼 예물이나 선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제 금은 장신구라기보다 금융자산에 가깝다. 경제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이 엄청난 돈을 시장에 풀기 시작하면서 금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금리는 내려가고 막대한 규모의 돈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유동성이 늘어나며 달러 가치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 달러 가치가 흔들리자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금이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세계 경제 불안은 더 심해졌다.

중동 갈등에 더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격렬해졌다. 세계경제와 경제가 불안해지자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금값은 연말을 지나 2029년 무렵 크게 오를 것 같다. 물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경제적 흐름을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우선 미국의 재정위기가 금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미국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부채로 인한 재정위기를 피하려면 미국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문제는 시장에서 그 국채를 언제까지 어느 만큼 소화할 수 있느냐이다. 만약 미국 국채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에도 충격이 미치게 된다. 그런 순간이 오면 투자자들은 다시 금을 찾을 것이다. 2029-2030년은 세계 경제의 커다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금리 정책, 글로벌 부채 문제, 원자재 부족, 지정학 갈등 같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겹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6시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해설: 손호성
새로운 고도의 퍼즐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4	5	1		7	2
	8					1		
			1		3		6	
5	7	9				2	1	4
	3		6		7			
		7						2
9	4		7	3	2		8	5

7		8		5	1			6
		9				1		
	2		4				7	3
5				7				
3		5	7		6	9		1
				9				2
1	5			6				8
		4				3		
4			8	2		7		5

9	8	9	2	8	2	1	4	6
6	7	2	9	1	6	9	2	8
1	2	7	6	8	9	2	9	8
8	6	9	2	7	9	2	8	1
4	1	2	8	9	8	6	2	9
2	9	6	8	2	1	8	9	4
9	8	1	4	6	2	9	8	2
6	9	8	9	2	8	7	1	2
2	2	8	1	4	9	4	6	9

9	1	2	6	2	8	8	9	4
2	9	8	8	1	9	4	6	2
6	8	7	8	9	2	2	1	1
2	7	9	2	6	8	1	8	9
1	2	6	9	8	2	9	4	8
8	8	9	4	2	6	2	1	9
8	2	8	9	4	1	9	2	6
7	9	1	2	8	9	6	2	8
9	6	2	1	9	4	8	8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3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3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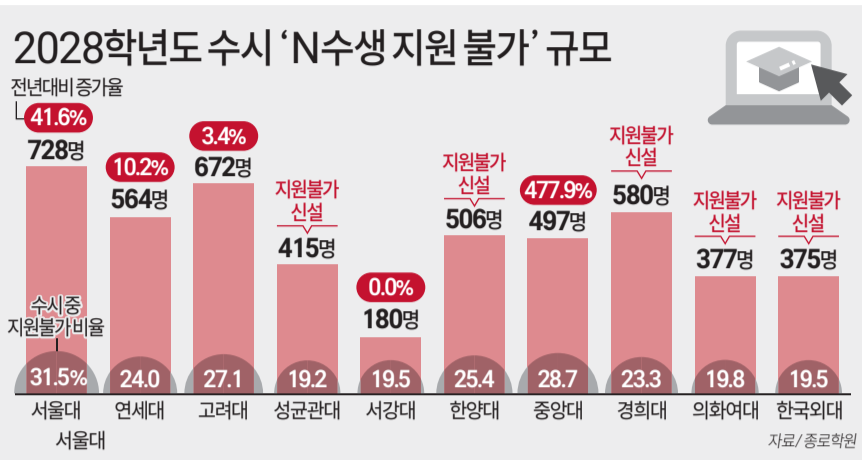
내신체제 개편에 지원제한 급증 N수생 주요대 수시 문 좁아진다

2028학년도 대입, N수생 제한 늘어
주요 대학 4명 중 1명 '지원불가'
5등급제 전환에 평가부담 커져
올해 수시 교과전형 경쟁심화 예상

2028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10개대 수시 모집인원 4명 중 1명기량은 N수생이 지원할 수 없는 전형으로 선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서로 다른 내신 체제의 수험생을 함께 평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 2027학년도 수시에서는 주요대 교과전형을 중심으로 지원 풀림과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14일 종로학원이 2027·2028학년도 주요 10개 대학 수시모집 전형을 분석한 결과, N수생 지원이 불가능한 전형의 모집 인원은 2027학년도 1942명에서 2028학년도 4894명으로 2952명 늘었다. 증가율은 152%다. 분석대상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경희대·이화여대·중앙대·서강대·한국외대 등 10개 대학이다. 주요 10개대 수시에서 N수생이 지원할 수 없는 전형의 비중도 커졌다. 2027학년도에는 수시 모집인원 1만9279명 중 N수생 지원 불가 전형이 1942명으로 10.1%였지만, 2028학년도에는 수시 모집인원 2만264명 중 4894명으로 24.2%를 차지한다.

대학별로는 2027학년도 수시에서 N수생 지원 제한이 없었던 성균관대, 한양



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5개 대학이 2028학년도에 관련 전형을 신설한다. 이들 5개 대학의 N수생 지원 불가 전형 신설 인원은 총 2253명이다.

기준에 N수생 지원 제한 전형을 운영하던 대학에서도 모집인원이 늘어난다. 서울대는 2027학년도 514명에서 2028학년도 728명으로 41.6% 증가하고, 연세대는 512명에서 564명으로 10.2% 늘어난다. 고려대는 650명에서 672명으로 3.4% 증가한다. 중앙대는 86명에서 497명으로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서강대는 180명으로 유지된다.

2028학년도 각 대학 수시 모집인원에서 N수생 지원 불가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대가 3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대 28.7%, 고려대 27.1%, 한양대 25.4%, 연세대 24.0%, 경희대 23.3% 순이었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에 제한이 집중됐다. 2028학년도 주요 10개대 N수

생 지원 불가 전형 4894명 중 교과전형이 4079명으로 83.3%를 차지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728명으로 14.9%, 논술전형은 87명으로 1.8%였다.

이는 내신 정량평가 비중이 큰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서로 다른 내신 체제를 적용받은 수험생을 비교하는 데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N수생과 빈수생의 움직임도 올해 수시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 9등급제 내신을 가진 수험생들이 올해 2027학년도 수시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8학년도 내신 5등급제 전환 첫해인 만큼 대학들이 내신 체제 혼재에 대응해 지원 자격을 조정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후 대입 환경과 지원자 규모에 따라 대학별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대학 10곳 중 6곳, 2년 연속 등록금 인상

203개 대학 연속 인상... 전체 64% 수도권·4년제 사립대 인상 흐름 뚜렷

전국 대학 203곳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 10곳 중 6곳 이상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한 셈이다. 특히 사립대와 수도권 대학에서 인상 흐름이 두드러졌고, 서울 소재 사립 일반대학은 10곳 중 9곳 가까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렸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 모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전국 317교 중 203교로 집계됐다. 전체의 64%다.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한 203교를 학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이 115교, 전문대학이 88교였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가 200교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공립대는 3교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115교 중 84교, 비수도권 대학 202교 중 119교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렸다.

인상 비율은 사립대와 수도권에서 더 높았다. 사립대와 수도권 대학 모두 10곳 중 7곳 이상이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등록금을 인상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사립 4년제 대학에서 인상 흐름이 뚜렷했다. 수도권 사립 일반·교육 대학 65교 중 51교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해 78.5%를 기록했다.

서울 소재 대학 48교 중 39교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려 81.3%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서울 사립 일반대학은 34교 중 30교에 해당하는 88.2%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서울 사립 일반대학 10곳 중 9곳 가까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린 셈이다.

2024년 대비 2026년 평균등록금 증감률은 8~9% 구간이 가장 많았다. 해당 구간에 속한 대학은 131교였다. 다만 이 수치는 대학이 공시한 평균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학과별 정원 변화 등의 영향이 반영될 수 있다.

김문수 의원은 "대학재정이 등록금에만 기대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과 법인 투자, 대학의 자체 수입 확대 방안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안성시 금광호수 연간 방문객 45만명 돌파

전국서 찾는 대표 관광 명소로 성장

안성시는 지역 대표 관광지인 금광호수 일대가 관광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콘텐츠 개발에 힘입어 방문객 증가와 소비 확대, 창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조성 전후를 기준으로 BC카드와 KT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광객 유입과 소비, 창업 지표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개발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통신 데이터 분석 결과, 박두진문화길과 수석정 수변화원 등을 포함한 금광호수 주요 관광자원의 연간 방문객 수는 4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광호수가 지역 관광지를 넘어 수도권과 전국 관광객이 찾는 대표 호수관광 명소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비 효과도 뚜렷



금광호수. /안성시

하게 나타났다. 금광호수 반경 2km 이내 관광 관련 소비업종 26개 업종의 연간 카드 매출액은 하늘전망대 개장 전 199억 원에서 개장 후 253억 원으로 증가해 54억 원(26.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상권의 활력을 보여주는 창업 지표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2024년 8월 하늘전망대 개장 이후 반경 2km 내 신규 창업은 157개에 달한 반면 폐업은 3개에 그쳐 순증 규모가 154개로 집계됐다.

/안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통합운영 '이음학교' 확대... 학생 감소 대응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개선 나서
2개 이상 학교 인적·물적자원 통합
재학생 학부모 50% 찬성시 지정 추진
교육활동·시설개선 최대 110억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확대에 나선다. 학교 재배치와 통합할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소규모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정 학교에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대 110억원이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저출생과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 운영 공모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음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모델이다.

서울에서는 현재 강빛초·중, 해누리초·중, 서울체육중·고, 잠실여중·고, 이대부속이화금란중·고 등 5개 학교가 이음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2027년 3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된다. 통합 유형은 초·중, 중·고, 초·중·고 등이며, 운영 방식은 ▲일체형(학교 시설을 폐쇄해 통합 운영) ▲연계형(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운영) ▲복합형(2개 이상 학교급을 동시에 신설·이전) 등으로 나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공립학교는 교육지원청이 학교 의견을 수렴해 자체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학교가 많으면 추가 지정도 가능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지정 시기는 앞당기거나 변경될 수 있다.

이음학교 지정에는 학부모 동의 절차가 핵심 요건으로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재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지정을 추진한다. 학교 규모와 통학거리 등도 함께 고려된다. 학교 규모는 초등학교 240명 또는 12학급 이하, 중·고등학교 300명 또는 15학급 이하가 참모 기준이며, 통학거리는 200m 이내가 고려 사항이다.

이음학교로 지정되면 교육활동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부 지원금을 활용해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는 경우 10억원, 시설을 폐쇄해 통합 운영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40억~60억원, 중·고등학교는 90억~110억원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적정규모교육성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육활동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에 쓰인다.

운영 과정에서는 교장 1명, 행정실장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교사와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급별 배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초기 안정화와 학교 특수성 등을 고려해 조정 배치도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 각종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합 운영 하되, 구성원 의견에 따라 분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학교급 간 연계와 통합을 확대하고, 교과·비교과 교육활동, 행사, 학생 생활지도, 교직원 연수, 학부모 협의회, 시설·교구 등을 공동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현진 기자



▲美, 앤스로픽 AI 해외 접근 차단 조치...배경엔 아마존 제모
▲中, 대만 동부 해상교통로 상시 감시 나서...“유사시 대만·해상 봉쇄 사전 준비” /사신 뉴시스

▲다카이치, G7에 희토류 공동 비축 제안...中에 대응 모색
▲美·이란 전쟁 첫날 사망 하메네이, 내달 4일부 터 장례식

▲러시아군 “주말 하루새 우크라이나 드론 540기 격추...유류·수송시설 강타”
▲‘월드컵 마스크트 위장’ 페루 경찰, 마약 밀매 용의자 체포



월드컵 열기에
먹거리 매출 폭발
프로모션 총력전
니



Life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우주과학
차세대 신약개발
L2



“출퇴근 교통부터 안전·교육까지... 주민 체감 변화 이끌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안양시의원 당선인 이창성 의원

“정치는 거창한 구호보다 집안 횡단보다 하나, 출퇴근길 교통체증 하나를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성 안양시의원 당선인(이하 생략, 사진)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안양시 여야 후보를 통틀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시의회에 입성했다. 4년 전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뒤 나선 두 번째 도전이었다. 그는 이번 결과를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온 시간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였다.

그 4년은 패배를 성찰로, 성찰을 신뢰로 바꾼 시간이었다. 이 의원은 “579표 차 낙선은 저를 멈추게 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게 한 숫자였다”며 “이번 당선은 선거운동 몇 달의 결과가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쌓아온 신뢰의 결과”라고 말했다.

젊은 사업가였던 그는 이제 정치인으로 주민 앞에 섰다. 8평 오피스텔에서 시작한 사업을 15개 사업부를 둔 기업으로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안양을 일하고 배우고 즐기며 머물 수 있는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낯선 땅에서 배운 자립과 공감

이 의원에게 자립은 이른 나이에 찾아왔다. 중학교 2학년이던 그가 현지 선교사의 도움으로 영국에서 중등 공교육 과정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아버지가 처음 1년간랑 함께했지만, 이후에는 대부분의 유학생활을 홀로 보내야 했다. 부모 곁을 떠나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생활비와 학비를 걱정해야 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가나 출신 가정의 집에서 방 한 칸을 월세로 얻어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갔다”며 “대학 진학을 준비했지만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귀국하게 됐다”고 돌아봤다. 당시에는 큰 좌절이었지만, 그는 그 시간을 자신을 성장시킨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란 경험은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줬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다. 어린 시절에는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기대와 선입견을 부담스럽게 느낀 적도 있었지만, 부모가 보여준 삶의 자세는 이후 그의 가치관을 세우는 밑거름이 됐다.

◆ 책임과 동행으로 키운 사업

그가 사업가로 첫발을 댄 공간은 8평 남짓한 오피스텔 한 칸이었다. 결혼 후 원룸 월세살이를 하던 그는 안정적으로 일하던 교육업을 뒤로하고 창업에 나섰다. 자본도, 인맥도, 특별한 배경도 없었지만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믿음과 열정으로 십여 년 전 첫 사업을 시작했다.

그가 사업을 하며 붙잡아 온 원칙은 ‘신독(慎獨)’이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고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누가 평가하든 하지 않은 말은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금난과 예상치 못한 위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피하기보다 해결책을 찾으려 했



8평 오피스텔서 15개 사업부 기업 일괄 기업경영으로 쌓은 책임감, 지역사회로 도의원 낙선 후 주민 목소리에 더 다가가 교통·교육·인프라 등 주민 일상에 주목

주거-일자리-생활 순환 자족기능 강화 평촌신도시 재정비, 원도심 활성화 과제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지는 정치인 될 것

고, 실패를 멈춤의 이유로 삼기보다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려 했다. 직원들의 월급날이 다가오면 어떤 이유도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그때 배웠다. 이 의원은 “문제가 생기면 결국 대표가 해결해야 한다”며 “어려운 결정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개선하며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위기 속에서도 해법을 찾고 변화를 이여간 끝에 사업은 여러 분야로 뻗어갔다. 맞춤형사업으로 출발한 ㈜벨로벨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맞춤형정장 생산·

유통을 비롯해 바버샵, 한복, 뷰티, 외식, 커피, 기프트 사업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 현재는 약 60명의 임직원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의원은 회사가 성장하기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아내가 힘이 됐고, 동료들은 함께 회사를 키워갔다. 그는 “사업은 결코 혼자 성공할 수 없다”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믿으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 첫 도전 낙선...생활정치서 새출발

기업을 이끌며 쌓은 책임감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로 향했다. 이 의원은 “기업은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고, 정치는 주민을 만족시켜야 한다”며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주민들의 일상이었다.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처럼 개인의 노력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은 행정과 정치가 답해야 할 영역이었다. 그는 “누군가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직접 들어가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치의 문은 한 번에 열리지 않았다. 4년 전 경기

도의원 선거에서 그는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그 시간을 실패로만 남겨두지는 않았다. 다시 지역 안으로 들어가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쌓았다. 아파트 입주 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으며 층간소음과 주차, 전기차 충전 인프라, 커뮤니티 운영 등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은 문제를 가까이에서 조율했다.안양 덕현초등학교에서 5년째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 활동을 이어오며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또한 근영고등학교의 기업 연계 도제식 교육에 참여기업 대표 및 현장교사로 참여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 의원은 생활정치 출발점이 현장에 있다고 봤다. 아파트와 학교, 지역사회에서 만난 주민들의 불편은 정책이 닿아야 할 구체적인 지점이었다.

◆ “10년 뒤 안양은 자족도시로”

이 의원은 안양의 장기 과제로 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꼽았다.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교육, 생활 인프라가 함께 작동하는 도시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중심에 위치한 교통망과 교육 인프라는 안양의 강점이지만, 청년들이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현실은 풀어야 할 과제로 봤다.

이 의원이 그리는 안양의 미래는 주거와 일자리, 교육, 돌봄이 한 도시 안에서 순환하는 모습에 가깝다. 주거 기능만으로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는 기업이 모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며 “아이 키우는 가정은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청년은 일하며 꿈을 키우며, 어르신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도시가 안양의 미래”라고 말했다.

평촌신도시 재정비와 원도심 활성화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신도시는 노후화에 대비해야 하고, 원도심은 활력을 되찾아야 하는 만큼 어느 한쪽이 소외되지 않는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감시와 견제를 넘어 시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생활 속 요구를 정책으로 옮기고, 필요한 예산이 제때 쓰이도록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가 민원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라며 “도시가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세대가 뒤처지지 않도록 살피고, 안양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말보다 결과로 평가받겠다”

이 의원이 앞으로 4년 동안 남기고 싶은 변화는 주민들이 매일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출퇴근길 교통, 학교 주변 안전, 주차, 생활 인프라처럼 일상에서 반복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 기간 약속했던 공약을 하나씩 실현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주민 요구도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작은 불편이라도 실제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우리 동네가 실제로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말보다 결과로 평가받고 행동으로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이창성 안양시의원 당선인(왼쪽 세 번째)과 배우자 현혜정 씨(왼쪽 두 번째)가 지난달 13일 경기 안양시 호계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평촌교회 김소리 위임목사 등 참석자들과 예배를 하고 있다.

▲이창성 안양시의원 당선인이 지난 3일 당선 확정 후 심재철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창성 의원

메트로 한줄뉴스



▲‘네이마르 결장’ 브라질, 모로코와 1-1 무승부...스코틀랜드는 승전고
▲‘방패’ 호주, 역습으로 ‘창’ 튀르키예 뚫고 2-0 완승...아시아 무패 /사진 뉴스스

▲이란, 월드컵 비자 항소 4명만 성공... 11명은 끝내 미국행 불허
▲이정후, 18경기 연속 안타 마감 후 2경기 침묵...타율 0.328 2위 유지

▲영화 ‘군체’ 500만 관객 돌파...올해 ‘왕사남’ 이어 두 번째
▲국종박, ‘르네상스 걸작’ 소장 伊우피치미술관과 교류협약